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한국중동부유럽학회
2023년 겨울 학술대회

통합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에서의 통합 시도, 제도 변화



일시: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13:00-18:0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307호 (벽호홀)

주최: 동유럽발칸연구소(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
한국중동부유럽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통합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 교육에서의 통합 시도, 제도 변화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307호 (벽호홀)

일시: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13:00-18:00

- 개회 (13:00-13:10)

- 개회사: 김상헌 (동유럽발칸연구소장)
- 축사: 김성환 (한국중동부유럽학회장)

- 세션 1) 기획주제 1- 발칸 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13:10-15:10)

사회: 이상동

- 발표: 김정환, 엄태현, 조은나래, 권혁재, 김상헌
- 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중간휴식 (15:10-15:20)

- 세션 2) 기획주제 2-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15:20-17:20)

사회: 엄태현

- 발표: 유선비, 홍석우, 이옥진, 이상동
- 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 폐회 (17:20-17:30)

- 한국중동부유럽학회 정기총회 (17:30-18:00)학회 정기총회

주최: 동유럽발칸연구소(인문사회연구소 사업단), 한국중동부유럽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Program

개회: 참석자 전원

13:00-13:10

개회사 김정환 (동유럽발칸연구소장)

축사 김성환 (한국중동부유럽학회회장)

1세션) 발칸 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13:10-15:10

사회 이상동

발표 체제전환 전후 루마니아 교육 | 김정환

발표 대전환기에 나타난 근대 루마니아 교육의 복원과 변용
-교육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 엄태현

발표 슬로베니아 고등교육의 변동과 과제-볼로냐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 권혁재

발표 체제전환과 크로아티아의 교육의 변화 | 김상헌

발표 유럽연합 가입 이후 불가리아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한 연구
| 조은나래

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2세션)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15:20-17:20

사회 엄태현

발표 체코 교육제도의 전통과 변화 | 유선비

발표 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 현황, 과제, 전망 | 홍석우

발표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 | 이옥진

발표 EU통합 전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 | 이상동

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황성우** / <https://hufs.webex.com/meet/eebi>

안 건

- 2023년 학회 활동
- 2023년 결산 보고
- 차기 회장 선거
- 기타 안건

Contents

1세션) 발칸 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체제전환 전후 루마니아 교육 김정환	3
대전환기에 나타난 근대 루마니아 교육의 복원과 변용 -교육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엄태현	13
슬로베니아 고등교육의 변동과 과제-볼로냐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권혁재	25
체제전환과 크로아티아의 교육의 변화 김상헌	31
유럽연합 가입 이후 불가리아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한 연구 조은나래	37

2세션)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체코 교육제도의 전통과 변화 유선비	47
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 현황, 과제, 전망 홍석우	53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 이옥진	67
EU통합 전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 이상동	79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한국중동부유럽학회
2023년 겨울 학술대회

1세션) 발칸 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체제전환 전후 루마니아 교육 | 김정환

대전환기에 나타난 근대 루마니아 교육의 복원과 변용
-교육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 엄태현

슬로베니아 고등교육의 변동과 과제
-볼로냐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 권혁재

체제전환과 크로아티아의 교육의 변화 | 김상현

유럽연합 가입 이후 불가리아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한 연구 | 조은나래



제 1 발표

체제전환 전후 루마니아 교육

김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루마니아어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2차 세계대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3.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4. 체제 전환 이후의 루마니아 교육
5. 맺는말에 대신하여

1. 들어가는 말

루마니아 교육의 역사는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는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교육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는 루마니아 내 국가 형성의 정치 행정 시스템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념과 체제의 변화에 따라 개혁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했던 루마니아의 교육 시스템은 서유럽 교육 시스템과의 통합을 추구한 18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서유럽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어 굴곡과 변형을 보여준 공산 정권 시대의 교육 그리고 1989년 혁명 이후 서유럽 교육 시스템으로의 재통합을 보여주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고등 교육 시스템은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처음 몇 년 동안 중앙집권주의와 분권(자치)주의 사이를 오가며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1999년부터 시작된 볼로냐 프로세스는 루마니아의 교육 시스템에 혁명을 가져왔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각료회의에서 제정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입법안이 통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2차 세계대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19세기 이전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루마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거의 부재했다. 일부 영주나 군주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육적 역할을 하는 일련의 기관을 설립하려는 제한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었고 사회 규모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도 없었다. 그나마 개설된 학교나

기관은 주로 종교 교육과 일부 기본 교육(쓰기, 읽기, 산수, 외국어, 지리 등)을 제공했으며, 교육 언어로 문테니아(Muntenia)와 몰도바(Moldova)에서는 그리스어와 슬라브어 그리고 트란실바니아(Transilvania)에서는 라틴어가 사용되었다.¹⁾

최초의 학교 유형은 수도원과 함께 나타났으며, 공식 문서와 서신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슬라브어 쓰기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문헌에 따르면 마라무레슈(Maramureș)의 초기 영주들과 루마니아 통치자들은 교회슬라브어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몰도바와 문테니아의 영주들도 글을 배워 슬라브어를 할 줄 알아야 했다.²⁾ 루마니아에 인쇄술을 도입한 코레시(Coresi) 부제는 1577년에 출판된 루마니아어 최초의 시편(Psaltirea)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몰도바의 마지막 영주이자 지식인이었던 디미트리 칸테미르(Dimitrie Cantemir)는 1716년에 그의 유명한 저서 ‘몰도바의 기록(Descriptio Moldaviae)’을 통해 식자 문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몰도바에서는 이아콥(Iacob Eraclide)에 의해 이아쉬(Iași) 근처 코트나리(Cotnari)에 라틴학교(Colegiul Latin)가 설립되었으며, 트루 슈키오폴(Petru Șchiopul, 1574-1578) 시대에 폴란드에서 온 예수회 교사에 의해 또 다른 라틴학교가 역시 코트나리에 세워졌다. 1634년 바실리안 아카데미(Academia Vasiliană)는 바실레 루푸(Vasile Lupu) 영주에 의해 이아쉬에 설립되었는데, 대주교 페트루 모빌러(Petru Movilă)가 키예프에 만든 모빌러 아카데미(Academiei Movilă din Kiev)를 모델로 하여 슬라브어와 라틴어를 가르쳤다.

문테니아에서 고등교육의 역사는 17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문테니아의 통치자인 콘스탄틴 브란코베아누(Constantin Brâncoveanu)는 1694년 부쿠레슈티 왕립 아카데미(Academia domnească de la București)를 설립했는데,³⁾ 교육은 그리스어로만 제공되었다. 1776년, 문테니아의 통치자인 알렉산드루 입실란티(Alexandru Ipsilanti)는 아카데미 내에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가르치는 새로운 과정을 도입했으며, 사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문테니아와 몰도바에 비해 트란실바니아는 기득권을 가진 마자르족과 색슨족에 의해 학교 교육이 먼저 시행되었다. 14세기 초부터 트란실바니아 색슨족은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루마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가 1380년 시비우(Sibiu)에 세워졌다.⁴⁾ 1522년에는 시기쇼아라의 언덕

1) Dimitrie Gusti (coord.), *Enciclopedia României*, vol I, Editura Imprimeria Națională, București, 1938, pp. 433-434

2) Nicolae Iorga, *Istoria învățământului românesc*, Editura Casei Școalelor, București, 1928, p. 11-12

3) Academia Domnească de la Bucharest는 1694년 Constantin Brâncoveanu(1688-1714)가 Saint Sava 수도원 건물에 설립한 고대 그리스어를 교육 언어로 사용하는 고등학교로 철학교육은 테오피로스 코리달레우스(Teophilus Korydalleus)의 과정을 따라 이루어졌다.

4) 시비우에 위치한 독일계 고등학교 Colegiul Național ‘Samuel von Brukenthal’ din Sibiu는 1380년부터 기록된 루마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다. 시비우에서 여전히 중요한 고등학교 중 하나이며, 독일어로만 가르치는 학교이다. 학교 건물의 위치는 1449년 도시의 교구 교회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물은 1779년에 지어진 것으로 역시 도시의 복음주의 교회와 같은 안뜰에 위치해 있다. 학교 이름은 중요한 자산을 남긴 Samuel von Brukenthal 남작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https://ro.wikipedia.org/wiki/Colegiul_Na%C8%9Bional_%E2%80%9ESamuel_von_Brukenthal%E2%80%9D_din_Sibiu

학교(Școala din deal din Sighișoara)⁵⁾가 세워졌고, 16세기 초에는 거의 모든 색슨족 공동체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1541년에는 브라쇼브(Brașov)에 최초의 색슨족 중등학교(Gimnaziul superior săsesc din Brașov)⁶⁾가 인가되었다. 1722년에는 색슨족을 위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다. 트란실바니아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이 독일어나 라틴어로 이루어졌다. 농노제와 같은 중세 구조와 강력한 길드 시스템은 19세기까지 남아 있었으며, 종교 교육이나 길드 교육은 존속되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 루마니아의 모든 지역에서 문맹률은 매우 낮았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테니아와 몰도바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학교 교육이 가능해졌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나 수도원과 함께 운영하였지만, 교육 시스템의 발전으로 정규화된 교육 기관들이 설립되면서 루마니아어로 된 최초의 고등교육 과정도 조직되었다. 1813년 게오르게 아사키(Gheorghe Asachi)는 이야쉬에 최초의 측량기술학교(școala de ingineri hotarnici)를 개설하였고, 1818-1822년에는 부쿠레슈티와 이야쉬의 두 왕립 아카데미가 폐지되면서 루마니아어 교육 기관인 성 사바 학교(Colegiul Sfântul Sava), 미허일레아너 아카데미(Academia Mihăileană)로 대체되었다. 그 후 이 기관들은 루마니아 최초의 두 현대 대학인 이야쉬 대학(1860)과 부쿠레슈티 대학(1864)의 기초가 된다.

1862년의 철자법 개혁은 루마니아 전역에 통일된 교육 제도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1880년대는 교육부 장관 스피루 하렛(Spiru Haret)의 야심 찬 교육 개혁 및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특징되는 시기이다. 그는 초등, 중등, 고등교육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농촌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 개혁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교사 양성으로 유명하다. 그의 프로그램은 교육과 국가 건설을 혼합한 것으로, 농촌 문맹 퇴치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몰도바와 문테니아의 통일 영주 알렉산드루 이오안 쿠자(Alexandru Ioan Cuza)는 1864년 교육 시스템의 조직과 기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는 최초의 공공 교육법을 승인했다.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루마니아에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첫째는 부코비나, 트란실바니아, 바사라비아 등 4개의 역사적 지역의 통합으로 인한 4개 이상의 다른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가 직면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필요성이다. 교육과 관련된 주요 과제는 루마니아 단일 민족 국가의 달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교육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성숙도에 도달하여 국가 인구의 상당수를 조직화한 교육의 형태 안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초등교육은 의무 교육이었고, 모든 시민에게 무상이었지만, 문맹은 여전히 인구의 상당 부분(특히 노인)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피루 하렛의 교육 모델이 확산하였고, 트란실바니아와 부코비나 전역에 퍼져있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시스템의 교육 모델은 제거되었다. 이 기간에 공교육 시스템이 확장되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며, 사립 교육이 진전을 보였다.

5) 1522년 Sighișoara 왕실평의회 출신으로 세워진 독일계 학교로 오늘날 liceul 'Josef Haltrich'로 변경되었다.

6) 브라쇼브에 있는 요하네스 혼테루스 국립고등학교(Colegiul Național Johannes Honterus din Brașov)은 현재 루마니아 영토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 기관 중 하나이며, 1541년부터 독일어 교육을 제공하는 복음주의 색슨족 고등학교로 인증되었다. 본부는 검은 교회 바로 근처에 있다.

하지만 1930-40년대 군사 파시스트 독재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는 루마니아 교육 퇴보의 변곡점을 마련하였다. 공산주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 지식인과 많은 대학교수가 퇴출당하거나 은퇴를 강요당했으며, 자유주의 교육 시스템은 이데올로기와 대중 선동에 기초한 소비에트 교육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3.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루마니아 교육

1944년부터 1989년까지 교육 시스템은 루마니아 정부에 의해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었다. 1948년 집권한 공산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여 특히 교육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 기간의 핵심적인 특징은 통일된 기본 커리큘럼과 단일 교과서를 통한 극도의 중앙집권화, 과도한 정치화, 교수법과 교육 방식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대한 강조였다.⁷⁾

이 기간에 이루어진 개혁의 특징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48-1949년의 개혁으로 소비에트 교육 제도가 근본적으로 도입되며 자유 민주주의 대체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58년 탈소비에트 노선과 더불어 교육 제도의 여러 부문이 자율화되고 자유화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1972년 이후의 교육 개혁으로 그동안 해빙 분위기를 맞이하던 교육 시스템이 다시 제한적인 민족 이념과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의 교육체계 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 세 번째 키워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니콜라에 차우세스쿠(Nicolae Ceaușescu)의 중국과 북한 방문으로 이후 변화된 루마니아 사회의 패턴을 따른 것이다.

1948년 8월 3일 법령 175호에 따라 루마니아 학교에는 단일 교과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편찬은 교육부가 아니라 7년 주기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한 미하일 롤러(Mihail Roller)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동선전국 교육위원회(Comisiei de Învățământ a Direcției de Agitație și Propagandă a Comitetului Central al P.M.R.)의 몫이었다. 이렇게 제작된 교과서의 첫 모습은 소련 교과서의 번역본이었다. 이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내용은 근본적으로 번역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⁸⁾

1940년대 말 개혁이 모든 교육 기관의 국유화, 변화하는 경제 체제에 맞춰 교육 시스템을 조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교육 시스템에 주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50년대 개혁은 ‘산업 및 농업 생산과 이론적 학술 연구의 위대한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과학에 따라 학교 시스템을 재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⁹⁾

1949-1958년 공산주의 정부에게 있어 교육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7) Nedelcu, E. (1995) “Civic education in the romanian educational system” in LANE J. L. ed., *Ferment in education: a look abroad*. Univ of Chicago Press. p.101

8) Manualele vremurilor noi, 9am.ro,

<https://www.9am.ro/stiri-revista-presei/2007-09-17/manualele-vremurilor-noi.html>

9) Braham, Randolph (1972) *Education in Romania: a decade of chang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0

중요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1949년의 개혁은 낡은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기술, 이론 및 직업 고등학교 사이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이던 교육 경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대학의 자율성도 폐지되고 교육제도 전체가 중앙집권화되어 중고등교육 교사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교사의 근로계약도 해제되었다. 1949-50년에는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숙청의 물결이 이어졌다. 학교와 대학에서의 계급투쟁의 결과로 매우 중요한 교수 중 일부가 해임되고, 새 정권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교체되었다. 1957년에는 대학에서 ‘계급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계급투쟁이 나타났다. 프롤레타리아 출신은 중요한 이점이었으며, ‘반동적이고 착취적’ 가문 출신의 젊은 이들은 1960년대 초까지 거의 배제되었다.¹⁰⁾

1968년 5월 법률로 제정된 제3차 교육 개혁은 1968~1969년 초에 시행되어 70년대 사회주의 교육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 개혁 성과에는 첫째, 고등교육의 활성화와 현대화, 그리고 루마니아의 고등교육과 서구에서 일어나는 현대화 과정과의 조화, 둘째, 8년에서 10년으로 무상 의무 교육 연장, 셋째,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취학을 증가, 넷째, 직업교육의 개편이 포함되었다.¹¹⁾

학교는 세 단계(초중등, 고등 및 대학)로 나뉘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했다. 대부분 대학은 기술 연구소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모든 사립학교와 종교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그 부속 재산은 국고로 수용되었다. 새로운 과목이 도입되어 러시아어가 모든 단계에서 필수가 되었고, 프랑스어는 폐지되었다. 과학적 무신론이 종교를 대신하게 되었고, 소련식 학업 교재가 널리 퍼졌다. 대부분 사회과학은 완전히 억압되거나 병합되어 거의 금지되었고, 심리학, 법학, 철학은 스탈린주의적 교의에 기초하여 개혁되었다. 검열이 널리 퍼져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의 작업이 즉시 금지되었고, 프롤레타리아트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예술, 과학, 교육의 규범이 되었다.¹²⁾

의무 교육은 7년으로 늘어났으며, 루마니아 공산당은 개척단(Pionierii), 청년노동조합(Uniunea de Muncă pentru Tineret)과 같은 학교 내 조직을 만들어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인 교육 캠페인(이 기간에 문맹 퇴치가 90% 이상으로 급증)과 소수 언어(특히 헝가리어) 교육이 출현하거나 재도입되면서, 대중의 문맹 퇴치는 전체주의 정권의 전형적인 성과가 되었다. 공산주의의 마지막 기간에 12학년까지 의무 교육이 도입되었지만, 1989년 혁명과 함께 폐지되었다.

10) Abraham, Florin (2017) *Romania since the second world war*, London: Bloomsbury Academic, p.77

11) Braham, Randolph (1972) *Education in Romania: a decade of chang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13

12) Istoria educației în România,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ro.wikipedia.org/wiki/Istoria_educa%C8%9Biei_%C3%AEn_Rom%C3%A2nia

4. 체제 전환 이후의 루마니아 교육

공산주의 붕괴 이후 루마니아 교육체제는 루마니아 교육사에 있어 세 번째 개혁 시기로 특징된다. 체제전환 이후,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은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지속적인 개편 과정에 있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고등교육은 교육 개혁과 개발 실행의 느린 과정 속에서 중앙집권주의와 분권(자치)주의 사이를 오가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단계의 개혁 의제에 대한 주요 목표는 첫째, 교육 정책을 위한 일관성 있는 체제 개발, 둘째, 교육 개혁의 공동 자금 조달에 외국 파트너 유치, 셋째, 새로운 교육법과 관련 규정 제정, 넷째,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¹³⁾

국가 교육법 2011년 1호(Legea Educației Naționale nr.1/2011)에 따르면,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은 교육연구혁신부(Ministerul Educației, Cercetării și Inovării, MECI)의 규제를 따르며, 각 교육 단계에는 고유한 조직 형태 및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초중고교육은 공립, 사립, 종교 등 승인 또는 인가된 교육 단위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는 교육 형태와 수준 그리고 교과정 및 프로파일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과정에 따른 핵심 역량 획득 및 전문화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대학 교육의 양적 확대는 국공립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양적 팽창에 따라 2010년에는 전체 학생 수의 거의 절반이 사립대학에 등록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제도적 평가가 보여주듯이 연구가 아닌 학위취득에 편향되었다. 교육법 2011년 1호는 대학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부과했다. 1990년 이후 인구 감소와 서구로의 청년 이주로 인해 사립대학은 재정적 위기를 겪었고, 국공립대학이 국비 지원 정원 할당량 외 유료 학생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은 무자비한 생존경쟁에 돌입해야 했고, 중소도시의 국공립대학들 역시 전통적인 대학(부쿠레슈티, 클루지나포카, 이아시, 티미쇼아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¹⁴⁾

초중등교육 시스템은 개방적이다. 초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부가 개발한 방법론과 그 설정 조건에 따라 한 학교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한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한 프로파일에서 다른 프로파일로, 한 계열에서 다른 계열로 전학할 수 있다. 교육 다원주의는 초중등교육의 특징 중 하나이다. 루마니아에는 전통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교육 대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립 또는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습에 대한 교훈적이고 교육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은 주로 국가의 공식 언어인 루마니아어로 이루어지지만, 소수민족에게 속한 학생의 모국어, 대규모 민족 공동체의 경우 또는 국제 유통 언어(일반적으로 국제 유형의 사립학교의 경우)로도 이루어진다.

13) Iacob, Mihaela (2014) "History of Education in Romania with a focus on Bologna proces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Revista de Gestão e Avaliação Educacional*, 4(7), p.65-66

14) Abraham, Florin (2017) *Romania since the second world war*, London: Bloomsbury Academic, p.173

유치원은 나이(3~6세)에 따라 세 개의 학년(그룹)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3-4세 어린이를 위한 ‘소그룹(grupa mică)’, 4-5세 어린이를 위한 ‘중그룹(grupa mijlocie)’, 5-6세 어린이를 위한 ‘대 그룹(grupa mare)’의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유치원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대그룹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입학해야 한다.¹⁵⁾ 그동안 6-7세 아동을 위한 예비반(clasa/grupa pregătitoare 또는 취학 준비년을 의미하는 preșcolară) 과정은 2021년 의무 초등교육의 일부가 되어 초등학교의 예비년으로 옮겨졌다.

공식적인 초등교육은 예비년(clasa pregătitoare)과 1-4학년으로 구성되며, 예비년은 초등교육의 첫 번째 수업 과정이다. 아이에게 있어서 예비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아이가 사회 정서적, 지적,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프로그램,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의 특정 요구 사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초등교육은 대부분 학생을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친다. 일부 보조 교사들은 몇 가지 전문 과목(외국어, 컴퓨터 과학 등)만 전담한다.

중등교육은 5-8학년으로 구성되며, 의무 교육이다. 중등교육은 학생들이 지식 분야에 대한 다원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학생의 훈련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8가지 주요 역량 영역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 및 보편적 문화의 가치에 접근하기 위해 정신세계를 확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각 학급에는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 교사가 배정되며, 각 교과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사를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핵심 기술의 개발 및 다양화와 분야, 프로파일, 전문 분야 또는 자격에 따라 특정 기술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크게 ‘이론 유형(인문계 및 이론)’, ‘기술 유형(기술, 서비스, 천연자원 및 환경)’, ‘직업 유형(군사, 신학, 스포츠, 예술 및 교육계)’의 세 가지로 나뉜다. 고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처음 2년(9학년과 10학년)은 의무 교육이나 다음 2년(11학년과 12학년)은 선택이다. 그 외 ‘후기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 과정’도 있다.

초중고의 특수 교육(învățământul special)과 특수 통합 교육(învățământul special integrat) 역시 루마니아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든 어린이, 학생, 청소년의 결핍 정도와 발달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신, 청각, 시각 관련 장애 등 모든 수준의 초중등교육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 분야의 법률은 다양한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 교육, 특수 통합 교육, 포괄 교육(învățământul incluziv)¹⁶⁾이 모든 수준의 초중등교육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단위는 정규 학교 커리큘럼을 적용한다. 이들 단위는 특수교육제도에 따른 구조와 조직 형태만을 다르게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 학교훈련, 특성화 측면에서 일반 학교와 유사하다.¹⁷⁾

15) “14 ani de școală obligatoriu începând din toamnă! Reguli pentru înscrierea la clasa pregătitoare”, BitTV.Info - PASCANI, TG. FRUMOS, HARLAU, 4 iulie 2020
<https://bittv.info/14-ani-de-scoala-obligatoriu-incepand-din-toamna-reguli-pentru-inscrierea-la-clasa-pregatitoare/>

16) 포괄 교육(învățământul incluziv)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범주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의미한다. 90년대부터 채택된 교육방식으로 오늘날 장애 학생의 약 절반이 일반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17) 루마니아교육부 Ministerul Educației (2023.10 기준) <https://www.edu.ro>

대학 교육은 임시 운영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대학, 연구 아카데미, 연구소, 고등교육 기관에서 조직된다. 국가 대학 교육 시스템은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대학 교육의 첫 번째 단계로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SECT)’에 따라 최소 180학점에서 최대 240학점을 수강해야 하며, ‘유럽 자격 체계(The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CEC)¹⁸⁾ 레벨 6 및 ‘국가 자격 체계(Cadrul Național al Calificărilor, CNC)’을 통해 완료된다. 정규 교육에서 대학 학부 과정의 특정 기간은 학부에 따라 3~4년 과정이며, 공학, 법학, 목회신학 분야의 학부 과정은 4년이다.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대학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CTS)’ 60~12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국가 자격 체계’와 유럽 자격 프레임워크(EQF) 레벨 7로 완료된다. 박사과정은 대학 연구의 세 번째 단계로 EQF/CEC 및 CNC에서 레벨 8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완료된다. 대학의 박사과정 학습 프로그램은 정규와 시간제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다.

후기 대학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는 5년 이내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박사후 연구 프로그램(programe postdoctorale de cercetare avansată)’, 최소 1년 이상의 ‘박사후 과정(programe postdoctorale)’ 그리고 대졸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programe postuniversitare de formare și dezvoltare profesională continuă)’과 ‘대학원 개선 프로그램(programe postuniversitare de perfecționare)’이 있다.

2016년에는 531,586명의 학생이 루마니아의 97개 고등 교육 기관(그중 56개는 공립)에 세 학위(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등록했다. 그중 464,642명은 공립대학의 학생이었고 66,944명은 사립대학의 학생이었다. 가장 큰 대학은 부쿠레슈티(172,038명), 클루지나포카(67,262명), 이아시(53,174명) 및 티미쇼아라(49,776명)이다.¹⁹⁾

5. 맺는말에 대신하여 (루마니아의 볼로냐 프로세스)

체계적인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는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의 체계적인 재구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1999년에 루마니아 정부 대표와 부처 관료들은 다른 29개 유럽 국가와 함께 볼로냐 선언에 서명했다.

18) EQF는 다양한 국가 자격 체계 간 호환되는 모든 유형의 자격에 대한 8단계 학습 결과 기반 체계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투명성, 비교성, 이식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자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EQF는 모든 유형과 모든 수준의 자격을 다루며, 학습 결과의 사용은 개인이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준다. 숙련도에 따라 레벨이 증가하며, 1레벨이 가장 낮고 8레벨이 가장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EQF가 국가 자격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EQF는 자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점점 더 접근할 수 있는 유럽 자격의 모든 유형과 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EQF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7년에 개정되었다. EQF의 개정은 유럽의 자격 환경에서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창출한다는 핵심 목표를 유지해 왔다. 회원국들은 EQF를 더욱 발전시키고 고용주, 근로자 또는 학습자의 국내, 국제 및 제3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https://europa.eu/europass/en/europass-tools/european-qualifications-framework>

19) “Care sunt cele mai importante centre universitare din România după numărul de studenți.” <https://www.analizeeconomice.ro/2017/10/care-sunt-cele-mai-importante-centre.html>

볼로냐 프로세스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다. 통일된 유럽 ‘유럽 합중국’이나 ‘지식의 유럽’을 창설한다는 목표가 공식화되었다. 1970년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고등 교육 기관(HEI)에 할당된 목표인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통일된 유럽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교육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의 통합적인 교류와 노력의 일환으로 소크라테스(Socrates),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유스 포 유럽(Youth for Europe) 등을 도입 확대하였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과 같은 후속 조약은 교육의 새로운 지식 기반을 개발하는 책임을 EU에 부여했다. 이러한 목표는 유럽을 ‘더 많고 좋은 일자리와 더 큰 사회적 결속을 통해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 기반 경제’로 만들기로 약속한 리스본 선언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고등교육 정책과 대화 영역을 창출하려는 목표는 1999년 볼로냐 선언이 서명되면서 현실이 되었다.²⁰⁾

이와 같이 볼로냐 프로세스의 개혁은 2000년대 이후 루마니아에서 본격화되었다. 개혁의 목표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원칙과 EU의 입법 원칙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와 정보에 입각한 자원과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여 루마니아는 고등교육을 ‘세 단계 시스템(학사, 석사, 박사)’으로 채택했으며, 국가 자격 체계와 유럽 자격 체계(EQF)를 기반으로 한 내외부 품질 보증 프로세스 및 인증 절차가 포함된 ‘품질 보증’을 따르고, 유럽 학점 이수 시스템(ECTS)을 기반으로 한 ‘학습 기간 및 이수 인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성을 장려하는 ‘이동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루마니아 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할 기회가 쉽게 늘어났고, ‘고등교육의 국제화 촉진’을 통하여 루마니아 대학은 글로벌 가시성을 높이고, 외국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유럽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정 조달 기회와 협력 프로젝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루마니아 교육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와 개선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진행형 과제들 역시 남아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질, 자원 배분, 세계화 및 지식 기반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조정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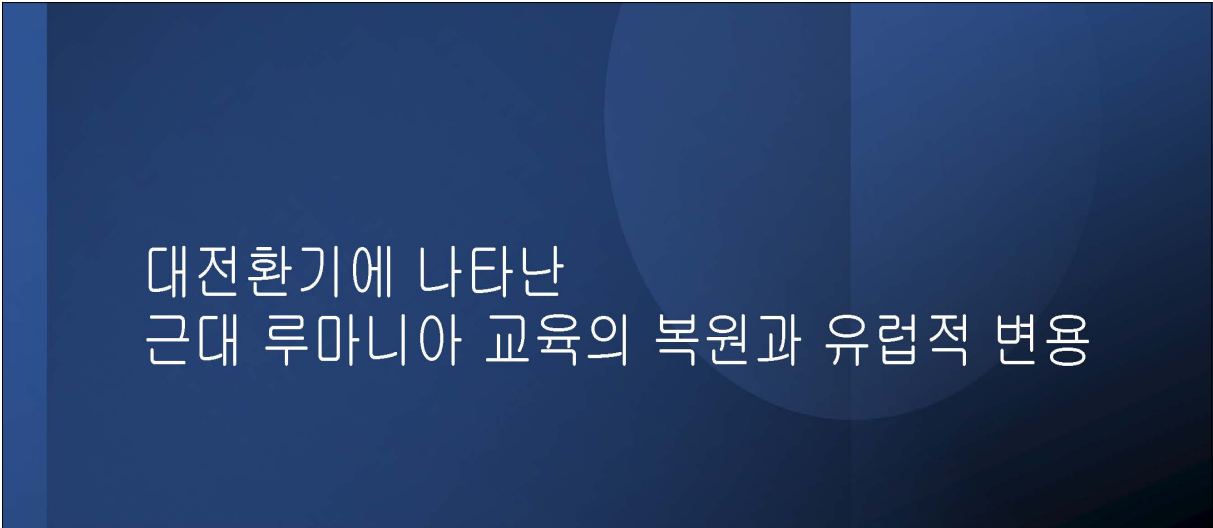
20) Iacob, Mihaela (2014) “History of Education in Romania with a focus on Bologna proces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Revista de Gestão e Avaliação Educacional*, 4(7), p.67

제 2 발표

대전환기에 나타난 근대 루마니아 교육의 복원과 변용 -교육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엄태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대전환기에 나타난
근대 루마니아 교육의 복원과 유럽적 변용

엄태현

서론: 연구 목적과 방법

- 목적: 본 연구는 대전환기의 루마니아 사회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법1: 주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교육부분에서의 구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적, 법적 변화를 살펴봄
- 방법2: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교육에 대한 정치 철학적 배경 이해를 통해 루마니아 교육의 역사적 흐름 파악



루마니아의 대전환기?
1989년의 체제전환과 2007년의 유럽 통합 전환
전후 시기를 의미

루마니아의 근대화 : 정치적, 문화적 근대

- 트란실바니아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 아르델레안 학파 중심의 라틴회귀주의
- 다뉴브 공국에서의 민족주의 : 자생적 운동 그리고 아르델레안 학파의 문화운동 영향
- 파나리오트(Fanariot): 그리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된 서유럽 근대 문화
- 행정조직법(Regulamentul Organic): 러시아에 의해 강제된 행정적, 제도적 개혁
- 1848년 혁명과 파슈티스트 : 통일과 독립 운동
- 1859년의 작은 통일 : 쿠자(Al. I. Cuza)를 통일 군주로 선출. 문화적, 정치적 근대화. 농민법, 교육법 등
- 산업적 측면에서의 근대화 부재, 산업적 근대는 20세기 중후반기 공산주의 기간에 시작

Al. I. Cuza에 의한 최초의 교육법

- Legea instructiunii publice, 1864, Art. 31
- 농민법에 의해서 가려졌지만 당시에 의미 심장한 법안으로 받아들임
- 교육법의 주요내용:
 - 1) 의무교육, 무상교육 : 8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
 - 2) 과목 : 읽기, 쓰기, 위생개념, 문법, 지리, 역사 등
 - 3) 감독 규정: 지역의 신부에게 아동의 교육 의무 감독 의무부여
 - 4) 보호규정: 기업가 혹은 지주에게 12세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
 - 5) 재정 : 의무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쿠자 교육법의 한계

- 시대를 앞섰던 교육법: 교육에서의 평등과 무상교육을 통한 공정한 기회라는 원칙은 당시의 루마니아 경제 상황에 비해서 다소 앞섰던 것 > 이를 실현할 자원부족
- 당시 제도적 변화를 감당할 인적(교사), 물질적 자원(학교, 인건비 등)이 부족했고 이러한 준비 부족은 법의 정신이 구체화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
-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약 70년이 지난 이후 실시된 인구 센서스에서 루마니아의 문맹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였음 > 이는 쿠자의 교육법이 이상처럼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쿠자의 이상주의 > 쿠자의 실패한 다른 법 (농민법 등)에서도 볼 수 있음
- 이상주의자 쿠자의 개혁은 대체로 실패하지만 이후 세대 개혁의 밑거름

공산주의 시기의 교육

- 새로운 사회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념 교육
 - 공산당 지도부가 내세운 교육의 목표는 공산국가,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인간”(New Man)의 창조 (A. D. Rădescu, 2021 : 160)
 -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됨
 - 1) 교육의 형식: 소비에트 교육체제와 동일화하는 작업
 - 2) 교육의 내용: 공산주의적 이념에 부합하는 인간 양성 (탈자본주의, 이타성, 공산주의 이념, 산업자원)
 - 오늘날 공산주의 교육 방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단, 공산주의 시기에 교육 부분에서 이루어 낸 문맹 퇴치는 하나의 업적으로 높이 평가받음
- 참고: 1930년 루마니아 최초의 인구총조사 > 전체 인구 약 1,800 만 명 가운데 7세 이상 인구의 38%가 문맹

공산주의 초기 교육법

- 1948년 제정 교육법
 - 소비에트 스타일의 교육 안착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
 - 공산당이 교육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권력 구조의 변화 추구(G. S. Connor, 2003)
 - 이는 교육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던 자치권을 공산당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
 -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대기 이후 루마니아 교육에서 기본기조를 뒤집는 것
 - 예) 사립학교나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폐지하거나 공립화하
 -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던 대학의 자치권 상실
 - 대학생 입학과 대학교수 선발은 출신성분에 의해 결정. 예) 쿨라크(kulak) 출신은 대학에 입학불가
- (I. Stanciu, 1992)

차우세스쿠 시기의 교육정책

- 반소노선을 걸었던 차우세스쿠는 소련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2가지 방향에서 교육
 - 1) 모든 시민의 군인화 > 일반 시민에게 “군사적 시민”이라는 정체성 강요
 - 2)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 다치아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전개 > 소련에 대항
- 당시 주요 교육내용
 - 1) 루마니아 역사교육의 복원 : 다치아왕 데체발, 다치아의 불멸의 정신, 블라드 3세
 - 2) 루마니아 문학 및 위대한 문학가의 복원
 -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교육, 러시아어의 의무교육은 없어짐 (A. D. Rădescu, 2021 : 161)

차우세스쿠 시기의 교육정책의 이념적 모순

- 공산주의 이념에 루마니아 민족주의를 더한 형태로 발전 >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 민족을 초월한 모든 민중의 단결이 핵심 주장인 마르크스-레닌의 이념과 민족주의는 상치
(단, 대부분 동유럽 공산주의에 민족주의적인 성격 나타남)
- 로마와 맞서 싸웠다는 서사는 로마 제국 자체를 루마니아의 기원으로 여긴 근대기 루마니아의 정체성과 상반
- 드라쿨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블라드 3세의 존재는 기독교전통이 강한 루마니아인의 정서와 상반
- 이 시기의 교육에서 볼 수 있는 특징
 - 1) 소비에트에서 강요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약화
 - 2) 국제 노동자 동업 정신(Cosmopolitanism)의 약화
 - 3) 종교 중심적 사고의 해체
 - 4) 근대적 민족정체성의 핵심인 라틴니즘(Latinism) 해체

차우세스쿠 시기의 교육법

- 1968년 헌법에서의 교육 분야 개정
- 의무교육의 연장: 8년 > 10년.
1948년 축소된 의무교육 기간을 복원한 것 (소비에트에 의해서 강요된 48년 법안의 수정)
(M. Marin, 2018 : 29)
- 이 시기에 나타난 교육 목표의 변화는 독립적인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양성
- 이를 위해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 > 기술학교, 농업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 > 직장에서의 실무와 학교에서의 이론을 병행

학문적 공산주의?

- 차우세스쿠 시기의 교육분야의 변화: <공산당 주도의 계획 경제>와 <공산주의 이념의 고도화>에 맞춘 교육으로 [기술 분야 교육 + 이념교육]이 대부분
- 공산주의가 발전하면서 인문학과 같은 보편적인 문화와 교양을 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외시
-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학문적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 영향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최적화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 산업분야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상으로 재편되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
- “**학문적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문적 공산주의**”로 이해될 수 있음

대전환기 루마니아 교육법의 변화

- 대부분 동유럽이 체제 전환 이후 혼란기를 겪지만,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 이후 어느 정도 정상화
- 루마니아는 이에 비해서 대략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긴 혼란의 시기를 겪음
- 체제 전환 이후 타 동유럽에 비해서 혼란이 장기화 이유> 체제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
- 새로운 정치적 대안 세력은 없거나 무기력 > 기존의 사회주의자 재집권 > 국내외에서 지지받지못함
- 민영화 등 시급했던 개혁은 추진력 동력을 얻지 못함
-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은 비슷하게 나타남
- 여러 제도적 개편을 추진했지만, 다양한 방향의 힘이 충돌 > 민족주의 대립, 좌우 이념대립 등

체제 전환 이후의 탈 공산주의 교육

- 체제 전환 이후 교육에는 많은 변화 발생
- 차우세스쿠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숭배화, 우상화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교과서의 왜곡은 사라짐
예) 역사책
 - 1944년 8월 23일 쿠데타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삭제
 - 1866년 독일왕조의 시작에 대한 설명 추가
 - 차우세스쿠에 대한 칭송, 사진 자료 등 사라짐
- 하지만 개편 역사 교과서 등의 내용에서 볼 때, 사라진 독재 시기 부분에 평가는 없음
 - > 공산주의 부분을 그냥 삭제한 교과서가 사용됨 (4학년 역사 교과서)

체제 전환 이후의 교육법 변화 : 1995년 교육법

- 1991년 헌법 : 공산주의 헌법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개인의 자유 보장 > 종교, 언어, 장학, 무료 및 의무교육
- 1995년 교육법 : 체제전환 이후 최초의 본격적 교육법(Nr.84/1995)
- 총론부분으로 이 법의 정신을 담고있는 1장 3항 (2)번에서는 “루마니아 학교 교육의 이상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각 개인 인성 형성을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통합적인 그리고 조화로운 발전에 있음”을 밝힘
- 교육법의 목표 : 교육 과정 개편, 정기적인 학생 평가, 교사들의 질적 수준 향상
- 새로운 규정
 - 1)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10년간의 교육을 의무화
 - 2)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성취도를 평가 (1999년 시작)
 - 3) 초등학교 교사는 고등교육을, 중등 과정 이상의 교사는 교육 석사과정을 밟도록 규정
 - 4)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교과서의 선택 가능

1995년 교육법의 소수민족문제

- 1995년 교육법은 현재까지 60회 이상 개정됨 > 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혼란상을 의미
- 1995년 교육법은 트란실바니아 지역 헝가리 소수민족 정당인 UDMR로부터 민족 차별로 비판받음
- 법안 곳곳에 <국가 공식 언어인 루마니아어>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서, 초기에 교육 자체보다 소수 민족 문제로 더 큰 관심을 받음
- 이 법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8, 122, 123, 126항 소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
- 예를 들어, 8항의 법안의 내용은 “모든 학년, 모든 지역에서 민족에 상관없이 루마니아어로 수업/ 모든 학교 문서는 루마니아어로만 발행/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 학교 문서는 루마니아어로 발행/ 소수 민족이 그들의 모국어로 수업받을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요약될 수 있음
- “법이 정하는 바”가 가리키는 것은 “소수민족의 비율이 최소 20%이상인 커뮤니티의 경우 소수언어로 보장”

유럽의 교육 통합 시도

- 볼로냐 선언: <21세기의 변화>에 대처+ <세계 대학과의 경쟁>을 위한 고등교육 부분에서의 개혁
- 1999년에 볼로냐에 모인 유럽 28개국은 “볼로냐 프로세스”로 불리는 일련의 개혁을 발표
- 볼로냐 프로세스는 2010년을 목표로 공인된 교육과정과 학위제도 운영 시도
- 유럽고등교육지대 (EHEA): 볼로냐 프로세스 1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에서의 교육 공인지대 선언
> 여기에서 고등교육의 학-석-박사는 대체로 3-2-3년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 유럽 학점 이전 및 누적 체계(ECTS) : 학점교환, 학위의 일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학점제도
- 고등교육기관의 학점 체계와 상호 학점 인정 시스템 등 **교육의 균일화를 통한 교육 품질관리 추구**

유럽과의 교육 통합을 위한 루마니아의 교육법 개정

- 2011년에 “국가교육에 관한 법률 1/2011호”(Legea educației naționale nr. 1/2011)
- 고등교육에서의 원칙 및 규정에 초점
 - 1) 고등 교육 기관의 조직과 구조 조정
 - 2)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독립성 제고
 - 3) 교수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 4) 교육의 질적 수준의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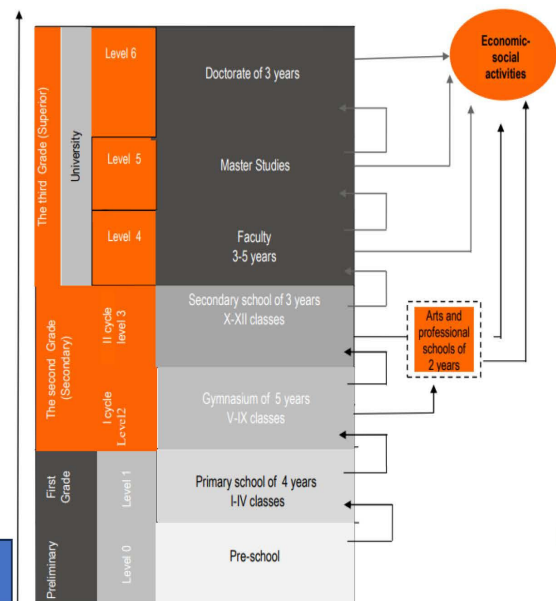
루마니아에서의 고등교육 부분의 대표적 개혁

- 루마니아는 2005년 유럽교육 체계와의 통합 시도 >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원칙 적용 시작
- 고등교육을 학사-석사-박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대체로 3-2-3으로 운영)
- 단계별 학위 수료의 기한을 한정
- 볼로냐 시스템을 받아들인 외국 대학과 교육에서 있어서 상호 호환성 유지
-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수용
- 루마니아 고등교육과정 개정
 - 볼로냐 프로세스 이전에는 석사에 해당하는 학위과정 없었음 > 즉, 학사-박사 과정으로 연결
- “전문가 과정”(specializare)이 있었으나 이는 학부 졸업생이 특정 직업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정, 박사과정을 위한 중간 단계로의 성격은 없었음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규정하는 3단계 교육 체계

- 초등, 중등(중-고등), 고등(대학-대학원)의 단계별 기간은 국가별, 학문 분야별 상황에 맞게 적용
- 루마니아의 경우
 -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1단계는 4년(1~4학년)
 -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2단계는 8년
(중학교 과정 5~8학년, 고등학교 과정 9학년~12학년)
 - 고등: 3(학부)-2(석사)-3(박사)

초-중-고 3단계의 도식화



결론

01

-루마니아의 체제전환 이후는
근대기 철학과 이념의 복원과 변용
-이는 교육분야에도 적용됨

02

-교육은 지배적 사회 이념이
고도화되는 단계에서, 그
이념의 실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성을 가짐

03

-공산주의 > 상공업 인력 양성
-자본주의 > 첨단산업인재 양성
-이념을 초월하여 교육은 늘
목적이기 보다는 수단화 됨

참고문헌

- Almaş, D., E. Fotescu (1986) *Istoria Patriei : Manual pentru Clasa a IV-a*, Bucureşti: Ed. Didactică si Pedagogică.
- Almaş, D. (1997) *Istoria Românilor : Manual pentru Clasa a IV-a*, Bucureşti: Ed. Didactică si Pedagogică.
- Connor, G. S. (2003) *The reform of education in Romani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teaching of geography in secondary schools* (masters dissertation). http://purl.galileo.usg.edu/uga_etd/connor_georgeta_s_200308_ma
- Filipescu, V., Oprea, O. (1972) *Învăţământul obligatoriu în Romania şi în alte ţări*. Bucharest: Editura Didactică şi Pedagogică, p.13-17.
- Pop, Ş. (1933) *Colegiul Naţional Sf. Sava, Boabe de grâu* 4:7, 393-414.
- Marin, M. (2018) "Education in Communist Times: the Case of Romania". *Sociologie Românească* 01+02:27-41.
- Monitorul Oficial (1864) *Legea instrucţiunii publice*.
- Rădescu, A. D. (2021) "Romanian Education At The Crossroads Between Two Millenniums". *Analele Universitatii „Constantin Brancusi” din Targu Jiu – Seria Litere si Stiinte Sociale* 01:159-164.
- Recensământul general al populaţiei României din 29 decembrie 1930, Vol. II, pag. XXIV
- Stanciu, I. (1977) *O istorie a pedagogiei universale şi româneşti până la 1900*. Bucharest: Editura Didactică şi Pedagogică, p.332, p.385.
- Stanciu, I. (1992) *Istoria pedagogiei*, Bucureşti: Ed. Didactică si Pedagogică.

참고문헌(인터넷)

- 1965년 개정 루마니아 헌법:

<https://legislatie.just.ro/Public/DetaliuDocumentAfis/14938>(검색일 2023.04.10.)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ducation Area - Procesul de la Bologna și Spațiul european al învățământului superior

<https://education.ec.europa.eu/ro/education-levels/higher-education/inclusive-and-connected-higher-education/bologna-process>

(검색일 2023.09.10.)

- Institutul de Științe ale Educației (2004) *Antologia Legilor Învățământului Din România*, București: Institutul de Științe ale Educației.

https://www.ise.ro/wp-content/uploads/2019/01/ANTOL_LEG_RO_2004.pdf(검색일 2023.11.10.)

- Savu George-Daniel, *Înainte și după Revoluție. Doi profesori explică, pentru RL, cum s-a schimbat conținutul cărților de istorie și literatură. Axarea pe conținutul informativ face să se considere că manualele de dinainte de 1989 erau mai bune decât cele de azi*, România Liberă (06.03.2017).

<https://romanialibera.ro/special/manualele-de-istorie-si-de-literatura-inainte-si-dupa-1989-442310/> (검색일 2023.11.13.)

제 3 발표

슬로베니아 고등교육의 변동과 과제

-볼로냐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중심으로

권혁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어과)

슬로베니아 고등교육의 변동과 과제: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 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권혁재

체제전환과 가치체계

- 시장 경제의 도입: 물질적 보상을 통해 노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동기 발생,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
- 민주주의의 강화: 다당제가 도입을 통한 다양한 정치적 선택 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 유발
-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가치관 존중,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이해 확대,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흐름 형성
- 국제적 통합과 협력: 국제적인 경제와 정치적 협력을 강화, 국가의 안정성을 증진
- 자유와 개인주의 강조: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흐름, 개인의 선택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중시, 자주적인 삶의 추구
- 교육의 역할: 시민교육과 다양성 존중, 비판적 사고 강화, 사회적 정의와 인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존중, 정부의 개입 최소화, 시장 경제를 통해 경제 활동 조절,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중시
 - 민주주의: 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집단적 의사 결정 강조,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를 선택하고 정책을 결정, 대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짐
- 정부 개입의 태도:
- 자유주의: 정부 개입 최소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보호, 시장 경제를 통한 경쟁과 개인의 선택 강조,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경향
 -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에 기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 국민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행동하도록 격려
- 개인 vs 집단:
- 자유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 강조, 자기 책임 강조,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 민주주의: 집단적 결정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중시, 다수결에 기반을 둔 의사 결정 과정, 다양한 의견이 고려되어 국민의 다양성을 대변하도록 노력

슬로베니아 가치 체계 변동의 특징

- 유럽 가치 환경과 비교하여 슬로베니아 고유 가치를 찾기 힘들
- 로마 카톨릭 유산의 강력한 영향을 가치 형성에서 찾기가 어려움
- 개신교가 슬로베니아의 사회적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침
- 체제전환 이후 평등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개입에 대해 상당히 강한 믿음을 공유(사회 민주주의)
- 민주주의에 대한 슬로베니아인의 신념이 서유럽 민주주의 국민의 신념보다 약함
- 소수자에 대한 관용 수준도 낮음
- 슬로베니아 사회에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잔재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한 갈등 발생
- 교육 분야와 대중 매체 분야에서 자유주의적 가치관 강조
- 슬로베니아 사회의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체제전환이후 슬로베니아 교육개혁의 방향

- 슬로베니아의 교육 개혁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 인권,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함
- 관용, 중립 등과 같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기존 사회주의 가치의 갈등에 대한 인정과 관리 부족
- 자유 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 이 주도한 슬로베니아 교육 정치는 자유 민주주의 보편적 자유 가치의 충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
- 자유 민주주의 가치체계 확립에 필수적인 관용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규범적 목표를 병행하는 목표 설정 필요
- 인권만을 강조하는 공립 학교 개혁과 더불어 정직과 진실 같은 보편적 윤리 교육 필요
- 고등교육에서 나타난 전통주의와 세계주의의 갈등

슬로베니아의 교육 개혁

- 1990년 이후 다양한 종류의 사립학교가 설립되고 공적 자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수준의 공립학교 시스템 개혁에 집중함
- 교육 조직과 제정을 위한 법률 제정(1991): 교육제도 전체 구조의 개편과 새로운 중앙화 정부의 재정을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
- 국립 교과 과정 육위원회(NACIONALNI KURIKULARNI SVET: NSE) 설립: NSE 설립과 함께 전문가 및 실무자 위원회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함
- 국가 평가 위원회(NACIONALNI SVET ZA EVALVACIJO: NKS) NSE) 설립(1998):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든 유치원 및 중학교에서 시행되었고, 초등학교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학교 개혁의 원칙과 목표(1995년 교육 백서): (1) 과학과 지식의 본질, 다양성, 합리성 및 관용성, (2) 평등, 정의, 연대, (3) 자치와 감독, (4)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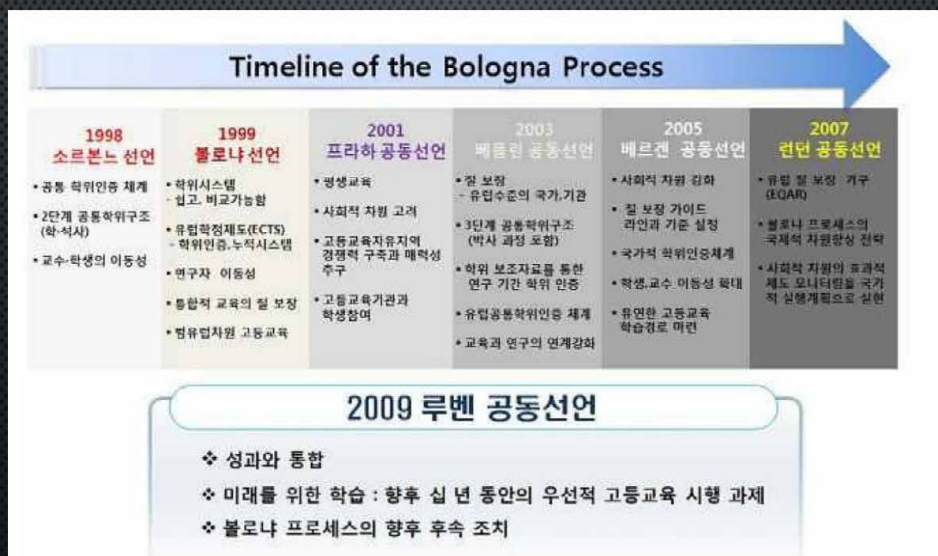
슬로베니아 고등교육의 변화

- 체제전환 초기 슬로베니아 고등교육
 - ✓ 학제 구분의 다양성: 학사(3년), 전문학사(4년), 석사(3년), 박사(4년) 등의 학위 존재
 - ✓ 학점 교류의 제한: 슬로베니아 내 대학 간 학점 교류는 제한적이었으며, 유럽 내 다른 국가의 대학과도 학점 교류가 어려웠음
 - ✓ 학위의 상호 인정의 미흡: 슬로베니아 고등교육 학위는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체제전환 초기에 고등교육에 있어 전통주의 경향이 강했고 유럽과의 통합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
- 대학과 학계는 정부의 개입이 대학의 자율성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 1999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합류하면 EU와의 협력을 시작하고 2004년 EU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 1999년 6월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이 2010년까지 비교 가능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및 학술교류의 확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단일 유럽 문화권을 완성하고 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
- 유럽 연합(EU)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소르본 선언'을 계승하고 '유럽고등교육권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의 구축을 목표
- 협약서의 목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요약: 1)유럽 국가내의 학술교류의 증대, 2)고등교육경쟁력 강화, 3) 고용증대
- 최초의 협약 이후 유럽연합은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
- 2010년 부터 협약의 내용들이 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 시스템에 적용

볼로냐 프로세스의 일정



슬로베니아의 볼로냐 프로세스

- 2004년 7월 볼로냐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법(The Higher Education Act: HEA) 의회 통과
- 학위 제도의 이견으로 2004년 12월 새로운 보수 정권은 HEA에 대한 일련의 조정을 제안
- 2006년 11월, 수정된 학위구조와 국가 관리 체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
- 새로운 볼로냐 학위 구조는 학제간 협력, 유연한 커리큘럼, 학제간 이동성, 다른 대학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연구 인정을 요구했으나 기존 슬로베니아 마리보르와 류블랴나 대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음
- 시장 지향적 개혁에 대한 매혹과 경쟁적 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
- "전환"의 기본 지침 중 하나인 규제 완화가 고등 교육에도 확장되었다는 상징적 의미
- 1990년 2개의 공립대학에서 2010년에는 3개의 공립대학, 1개의 사립대학, 30개의 다양한 종류의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됨
- 국내 경쟁을 창출하기 위해 공적 자금 지원 기관의 수를 늘리는 전략(2005년 개발 개혁 의제의 일부)는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음
- 탈사회주의 다른 동유럽과 유사하게 준비되지 못한 고등교육의 변동은 학생과 사회에 이익보다 불확실성을 더 많이 만들어냄

제 4 발표

체제 전환과 크로아티아 교육의 변화

김상헌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0. 크로아티아에 있어서 ‘체제 전환’의 의미

‘체제(體制)’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할 때, 그 조직이나 양식 또는 그 상태를 이르는 말’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정의는 사회의 내·외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이에 근거해 볼 때, 크로아티아에 있어서 ‘체제 전환’이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내적 특징의 변화를 의미하는 ‘양식 또는 상태의 변화’로써, ‘사회주의적 양식’ 또는 ‘사회주의적 상태’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공식적으로 선포된 단일체 국가 ‘유고슬라비아 인민공화국(The Federal People’s Republic of Yugoslavia)’¹⁾이 견지해 온, 즉,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적 정치 양식’이 ‘민주주의적 정치 양식’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크로아티아는 1990년 4월 치러진 자유선거에서 프란요 투쭈만(Franjo Tuđman)이 이끌었던 비사회주의 성격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을 통해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러한 내적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는, 외적 특징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로써, 1963년 국명이 변경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1945년 이후 형성되었던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단일체 국가조직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1991년 6월의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과 1992년 1월 유럽연합(EU)에 의한 독립 승인, 같은 해 5월의 국제연합(UN) 가입을 통해 해체되고, 그 단일체 국가조직의 일원이었던 크로아티아공화국이 또 다른 새로운 조직으로써의 ‘크로아티아공화국(The Republic of Croatia)’로 외적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1) 1963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The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SFRJ)’으로 국명 변경

1. “계기(契機)와 대상(對象)”

‘크로아티아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혹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기(契機)와 대상(對象)을 무엇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기(契機)’란 ‘변화의 결정적인 원인’을 의미하며, ‘대상(對象)’은 ‘변화의 목표나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1. 계기(契機) - 원인

‘크로아티아 교육 변화의 계기’로써 두 가지 결정적 원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내적 특징의 변화인 ‘양식 또는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 정치 양식’이 ‘민주주의적 정치 양식’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정치 양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크로아티아 교육 변화의 양상을 1990년 4월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내적 특징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계기로는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을 꼽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국가의 지향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전후로 하여 크로아티아 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변화 시점	역사적 사건	정체성의 변화양상
1990년 4월	비사회주의 성격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HDZ)’ 정권 획득	사회주의 → 민주주의 (극우 민족주의)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발칸 유럽 → 유럽연합(EU)

1.2. 대상(對象) - 목적

개별 국가의 교육 정책과 교육 내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변화하기 마련인데, 1) 사회나 경제 구조의 변화, 2) 세계화와 국제적 경쟁 심화, 3) 인구 구조의 변화, 4) 기술과 정보의 발전과 진보, 5) 사회적 요구의 변화, 6) 정치적 변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의 원인이 그 주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교육에 있어서 ‘변화 대상(對象)’인 ‘변화 목표 또는 목적’은 ‘변화 계기(契機)’인 ‘변화 원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 촉발된 내·외부로부터의 변화 요구는 1990년 이후 크로아티아의 교육 변화를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해체 이전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을 구성했던 하나의 개별 공화국으로써, 1990년 4월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크로아티아는 1945년부터 40년 이상을 유지해 왔던 ‘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선언했으며, 그와 같은 내적 정치체제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는 크로아티아에 있어 역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1990년 이전의 크로아티아는 중앙집권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사회주의 국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의 일부였으며, 1991년 6월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교육’이 포함된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난 주요한 교육 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크로아티아 교육 변화의 시점과 틀

2.1. 1990년 4월 이전 교육의 틀

- (1)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교육 :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부였으며, 교육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한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의해 중앙에서 통제되었으며,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커리큘럼, 교과서, 교육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 (2) 이념적 지향 : 1990년 이전 크로아티아의 교육 시스템은 집단적 가치,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 교육에 대한 중앙집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 (3) 제한된 자율성 : 초·중등 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이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연방 차원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존재했으며, 사회주의 원칙에 따른 이념적 정렬에 중점을 두었다.

2.2. 1990년 4월 이후 교육의 틀

- (1) 1991년 독립 : 크로아티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SFRJ)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고 교육 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탈중앙화 및 국가 정체성 확립 : 1990년 4월 이후, 교육 분야에서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민주주의(극우 민족주의)를 표방한 크로아티아의 새 정부는 각급 학교와 교육 기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 확립’을 두었다.
- (3) 커리큘럼 변경 : 1991년 6월 독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는 독립적 국가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가장 중점이 두어진 부분은 ‘크로아티아

의 국가 정체성’, ‘크로아티아의 역사’, ‘크로아티아의 문화유산’이 그것이다. 따라서 1990년 이전까지 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 (4) 사교육의 도입 : 1990년대 초반 크로아티아의 정치적 변화와 함께 각급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이 허용되면서,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3. 2013년 7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 이후 교육의 틀

2013년 7월 이후 크로아티아는 28번째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통해 유럽의 주변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로 거듭남으로써 유럽 표준에 맞춘 교육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각급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 교수법의 변화, 고등교육에서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채택 등이 포함된다. 현재 크로아티아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3년(Bachelor)+2년(Master)+3년(Doctor)의 유럽 공통 표준 교육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형식과 질을 여타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교육을 위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정책

1991년 독립선언 이후 크로아티아 정부는 언어와 언어교육, 역사교육, 문화유산 홍보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언어 표준화와 홍보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시절의 표준어였던 ‘세르보-크로아티아어(Serbo-Croat)’로부터 ‘크로아티아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크로아티아 언어 학자들을 중심으로 언어 표준화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공공 영역에서 ‘크로아티아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교육 및 커리큘럼 개발 : 크로아티아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국가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였으며, 크로아티아의 언어,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자료를 다양하게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보존하는 문화 기관, 박물관, 갤러리의 설립을 지원하고, 크로아티아의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고 이에 기여하는 문학, 음악, 시각 예술을 포함한 연구기관과 교육 기관을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3) 역사 인식 교육 및 기념관 설립 : 1991년 독립선언 이후 벌어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군과의 전쟁, 중요한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한 기념비, 기념관, 박물관 등을 새롭게 설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 5 발표

유럽연합 가입 이후 불가리아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현황에 대한 연구*

조은나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유럽어문학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인간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을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정치적 협력을 주 목표로 했던 초기 유럽 통합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으나 1955년 유럽대학(European University) 설립 제안, 1971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교육부장관 회담 개최, 1974년 유럽연합 교육위원회 설립, 1976년 유럽 대학 자매결연 지원프로그램 JSP(Joint Study Program) 개시, 1980년 유럽연합 교육 웹사이트 유리디스(EURYDICE) 구축, 1987년 유럽 대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라스무스(ERASMUS) 개시 등과 같이 유럽 차원의 교육 협력을 위한 행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오정은, 2009: 69-70). 현재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연합은 세계 속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분야 정책 및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을 신청한 시점은 가입이 승인된 2007년보다 훨씬 앞선 1995년이다. 이와 더불어 타 동유럽 국가들보다 3년이나 늦게 승인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간격은 자유주의 개혁을 원하지 않는 일부 정치 엘리트 집단과 소련과의 관계 유지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역사를 아우르는 불가리아의 한계점과 부정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하얀, 2021: 131-136). 불가리아는 체제 보완 시스템인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도입과 유럽연합 집행위 보고서 작성이라는 전례 없는 제약조치를 수반하며 가입 전후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불가리아 국민들의 여론은 2017년에 진행된 조사에서 과반수 이상(51%)이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이 불가리아에 득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보이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형성되

* 제목에 따르면 본고는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 이후 교육 정책 상의 변화와 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유럽연합 가입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불가리아 교육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유럽연합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이 불가리아에 적용된 사례와 현재 불가리아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고자 한다.

어 있었다 (유럽연합으로의 가입이 불가리아에 해가 되었다.”라는 답변은 26%에 그친다.).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더불어 불가리아 국민들은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달성 또는 보장되어야 하는 몇 가지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중 고용과 경제 성장의 영역이 61%로 단연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보건(38%), 이주(38%), 국제 정책과 안전(31%)의 영역 다음으로 교육(25%)의 영역이 위치하였다. 총 1021명의 참가자 중 1/4이 유럽연합 내 교육 분야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¹⁾.

이처럼 개별 회원국들 내 교육의 역할과 중요도가 확대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가입국 내 수준 높은 교육의 교류 및 상호작용 증대, 일자리 보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교육 분야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여왔다. 크게 2007년을 전후로 양분되는 유럽연합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007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Socrates, 교육 위주)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Leonardo Da Vinci, 직업 훈련 위주),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된 두 개 프로그램의 통합 버전인 평생교육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me)이 있다(김주석, 2008). 이러한 교육 분야의 협력 과정 도중 유럽대학개혁운동인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와 유럽교육권(European Education Area)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²⁾. 사실상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의 틀 밖에서 일어난 교육개혁운동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구경꾼의 자격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볼로냐 프로세스의 핵심 행위자로 변모하였다(오정은, 2009:82). 이처럼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들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바람직한 선례들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협력과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내 교육기관들 간의 원활한 비교 및 이해를 위한 형식적 조건을 갖추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표의 달성을 꾀하였다: (1) 취약 계층 아동 및 학습 장애 아동(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2) 주변화 된(marginalized) 사회 그룹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3) 교육 및 학업 이동성 보장³⁾.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가입국의 학생들 중 고등교육 차원의 교류에 해당되는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지 않거나 참여를 소망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3)번의 유럽연합 국가 내 이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또는 2014년부터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 소위 말해 유럽연합 이동성 프로젝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 기준 2,199개의 대학, 다시 말해 유럽 대학의 90% 이상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또는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에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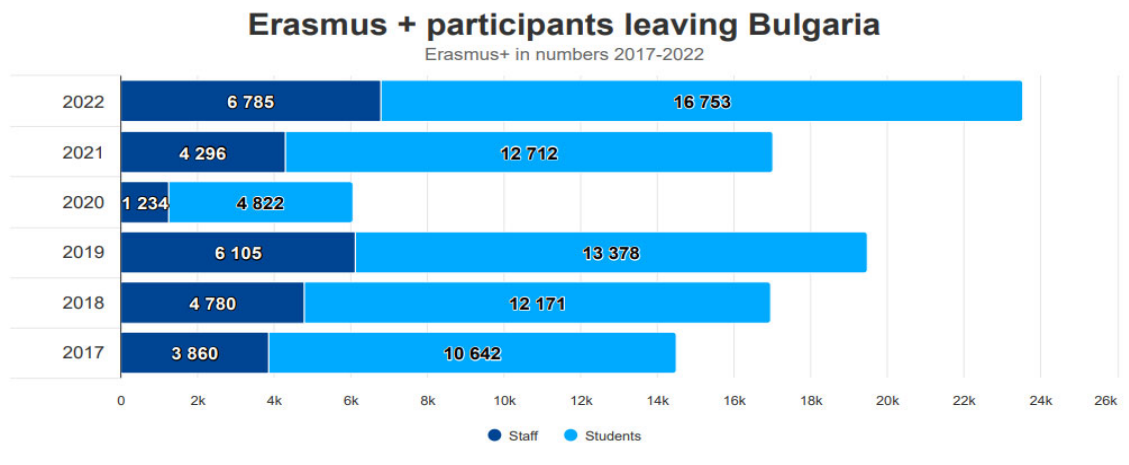
1) 10 години членство на България в ЕС: равностметка и перспективи - Алфа Рисърч (alpharesearch.bg) (검색 일자: 2023. 11. 22)

2) 일관성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지향하는 유럽교육권(European Education Area)은 볼로냐 프로세스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제도를 학사, 석사, 박사로 3원화 시키고 유럽학점인정제도(ECTS) 도입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대학 간의 교류 협력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Georgy Yordanov Ganey 외 3인, 2017: 6

무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세정, 2008: 125).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교류를 실현하지 못했다. 2007/2008년도 불가리아인 전체 교류 참가자 수는 2,280명으로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오정은, 2009:754) 다른 유럽 국가로의 파견 목표 비율을 전체 학생 수의 20%로 설정한 것과는 달리 실제 불가리아에서는 현저히 낮은 3%대의 파견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참여율 저조 현상은 교육 과정 상의 문제가 아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체류 비용과 교육 비용에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참여율은 저조했으나 불가리아 내에서의 에라스무스 참여도, 다시 말해 교육 이동성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였다(Georgy Yordanov Ganev 외 3인, 201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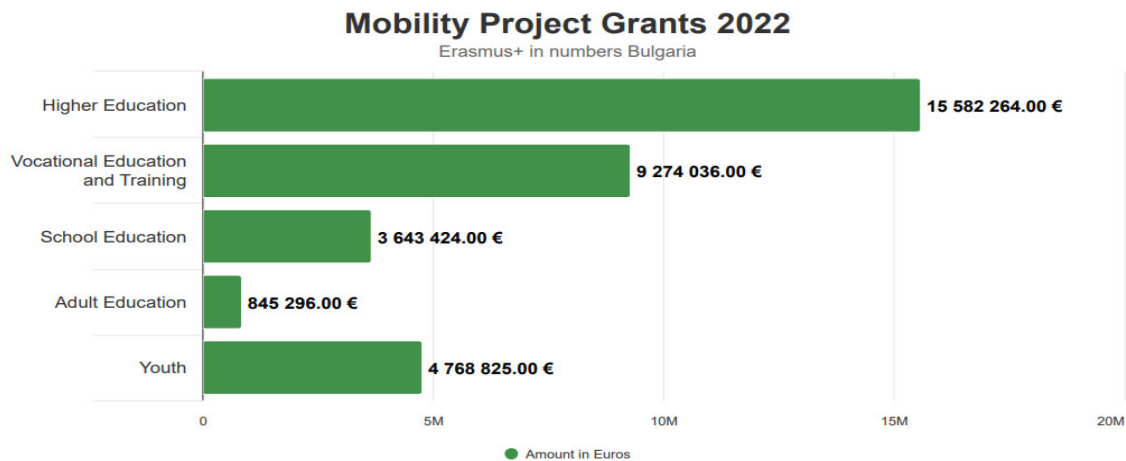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불가리아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수치는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후 2022년도에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⁵⁾.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추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2기(2021년-2027년)에는 1기(2014년-2020년)에 투입된 예산의 두 배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불가리아의 경우 이동성 프로젝트 지원금은 주로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고등 교육과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각각 15,582,264유로와 9,274,036유로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표 1> 국가별 ERASMUS 참가 학생 수(1987/1988~2006/2007) 참고

5) Erasmus+Bulgaria-in-2022.pdf (europa.eu) (검색 일자 : 2023. 11. 24)



이처럼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교/강사진이나 연구원들에게도 다양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타 국가로부터의 연구진 초청과 국제 학술대회의 개최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에 직결되었다. 불가리아 학자들이 유럽 학계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래 보이는 연구 실적의 증가로부터 확인된다. 2007년도에 유독 큰 증가폭이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불가리아의 유럽연합 가입과 이동성 보장이 불가리아 학자들에게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Динамика на публикационната активност в България, 2005 г. - 2014 г. съгласно данните в Web of Science (Източник: InCites, Web of Science, 2016 г.¹⁰)



이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학자들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브렉시트 이전) 영국, 오스트리아 등 타 유럽연합국가의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유럽 학술공동체로의 일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유럽 입자 물리 연구(CERN), 유럽연구재단(ESF), 유럽분자생물학기구(EMBO)와 같은 다양한 유럽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과 더불어 현재 2023년 불가리아는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의

지원을 받아 2021-2027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1-2027 “교육” 프로그램은 취학 전 유아, 특히 취약 계층 유아의 잠재력을 자극하여 성공적인 사회화를 독려하고 추후 학업 중단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1) 학업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유아 교육 강화, (2) 유아 교육 기관 내 인력의 자격 보강, (3) 부모의 유아 교육 필요성 인식을 위한 공동체의 형성.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사회기금플러스(ESF+)와 불가리아 자체 예산으로부터 총 105,400,000레바(53,924,522유로)가 배정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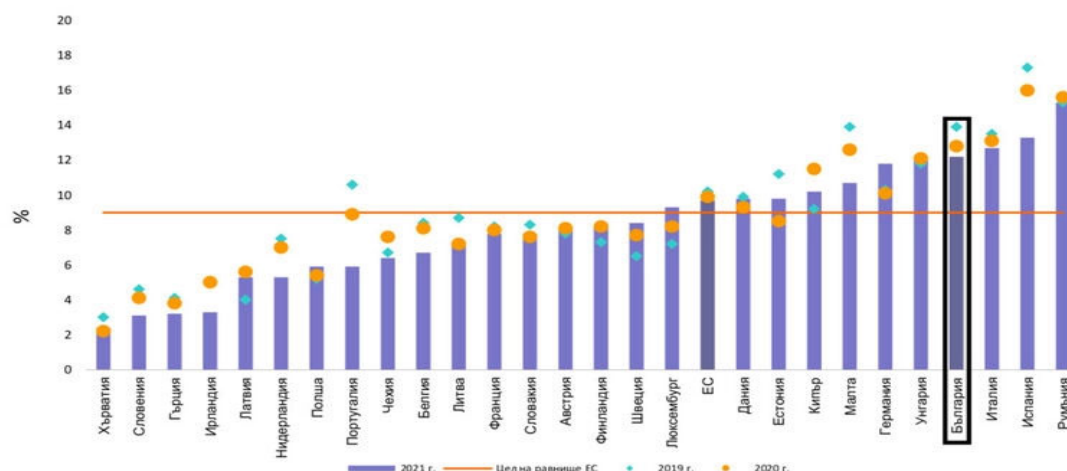
이러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이 배정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교육의 현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불가리아 교육과 관련한 기사들 중 대부분은 불가리아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불가리아 내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학생 수의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가리아 교육과 교육 기관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꾸준히 존재해왔다⁷⁾. 불가리아 학생들은 불가리아 교육 수준에 대한 불만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학업 이행의 어려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재, 그리고 이민이라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업 중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학생들의 등록 및 학업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 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나 <България отново е в дъното на класация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е в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해석 : 유럽연합 교육 순위에서 불가리아는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다.)⁸⁾>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파악되는 바와 같이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단연 높은 학업 중단 비율을 보인다. 2019년 14%, 2020년 12.8%, 2021년 12.2%로 점차 하락하고 있기는 하나 유럽연합의 평균인 9.7%보다는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6) В деня на Народните будители, УО на Програма „Образование“ 2021-2027 обявява процедура чрез директно предоставяне на безвъзмездна финансова помощ - „Обща и допълнителна подкрепа за личностно развитие в предучилищното образование“ | eufunds (검색 일자 : 2023. 11. 25)

7) Къде е България спрямо ЕС: Зле като образование и качество на институциите (capital.bg) (검색 일자 : 2023. 11. 25)

8) България отново е в дъното на класацията по образование в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графики) (gospodari.com) (검색 일자 : 2023. 11. 25)

Фигура 4: Лица, напускащи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системата на образованието и обучението, 2019 г., 2020 г. и 2021 г. (%)



България е един от държавите в ЕС, които имат най-висока част от студентите, които напускат образователната система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Според данните на Евростат (Eurostat) за 2021 г. средно 33.6% от българските студенти напускат висшето образование преди завършване на образователната система. Това е значително по-висока стойност от средната за ЕС, която е около 9.5%.

Един от основните фактори, които водят до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напускане на образователната система, е ниската мотивация и интересът на студентите. Това може да бъде свързано с ниската квалификация на преподавателите, ниското качество на образователните материали и ниското ниво на изследователската дейност. Друг фактор е ниската квалификация на студентите, които не са готови за висшето образование. Това може да бъде свързано с ниското ниво на образователната система в България.

9) Идентична стойност е изчислена въз основа на данните за студентите, които напускат образователната система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Данните за 2021 г. са от Евростат (Eurostat).

10) България е сред държавите в ЕС с най-малко висшестепенно образование - Investor.bg, Едва 30% от българите имат висше образование (gospodari.com) (поискане: 2023. 11. 23)

참고문헌

- 오정은 (2009) “유럽연합 교육정책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vol., no. 39: 69-86.
- 이세정 (2008) “유럽연합 교육법제의 발전과 최신 동향”, 『교육법학연구』, vol. 20, no.1: 103-132.
- 이하얀 (2001) “불가리아의 EU 가입 과정과 가입 이후 경제변화 추이”, 『통합유럽연구』, 제 12권 1집: 127-154.
- G. Y. Ganev, R. Smilova, D. Smilov, M. Mineva (2017) 10 години България в ЕС. Център за либерални стратеги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한국중동부유럽학회
2023년 겨울 학술대회

2세션)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체코 교육제도의 전통과 변화 | 유선비

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 현황, 과제, 전망 | 홍석우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 | 이옥진

EU통합 전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 | 이상동



제 6 발표

체코 교육제도의 전통과 변화

유선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 · 슬로바키아어과)

체코 교육제도의 전통과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선비

체코 교육의 전통과 의미

1. 고등 교육 전통의 시작:

1348년 신학, 의학, 법학, 인문학의 4개 학부로 시작한 까렐대학교 – Karel IV

2. 체코 교육의 명맥

체코 교육의 사상적, 철학적 배경은 얀 후스(Jan Hus)로부터 페트르 헬치츠키(Petr Chelčický)와 '교육학의 아버지' 혹은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진 코메니우스(J. A. Komenský)를 거쳐 정립됨.

3. 얀 후스(Jan Hus)

- 가. 체코 본연의 교육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명맥을 잇는 시발점
- 나. 체코 종교개혁의 근본
- 다. 교육자로서 일반대중이 체코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정비.
- 라. 신부로서 설교를 체코어로 하고 찬송가를 번역, 창작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족 교육에 앞장섬.

4. 페트르 헬치츠키(Petr Chelčický)

- 가. 'Jednota bratrská (형제 교단)'의 창시자
- 나. '무폭력 주의'라는 개념을 설파하여 체코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영향을 줌.
- 17세기의 'Kralická bible 크랄리체 성경'

5. 얀 아모스 코멘스키(Jan Amos Komenský)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Johann Amos Comenius)

가. 바로크 문학의 대가: *Labyrint světa a ráj srdce*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

나. 교육학의 집성

- *Didactica Magna*: 현대 교육 시스템의 근간 - 4단계 교육체계와 방학

- *Orbis sensualium pictus*

-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을 'Pampaedia(판패디아)' 즉 '범교육학':

모든 사람(omnes)에게, 편협한 것이나 지협적인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모든 것(omnia)를,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방법(omnino)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뜻함.

- *Schola Ludus*: 놀이의 장, 즐거움의 장

- **교육에 대한 평등사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교육 받아야 함. 남녀의 평등.

코메니우스는 "여성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성과 똑같이 은혜와 미래의 왕국에 참여하고, 남성보다 더 예민하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정신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여성도 남성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함.

- **유아 교육의 중요성 강조**: 코메니우스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는 성서를 인용하면서 '궁극적인 새로움'의 중심에 어린아이를 둠.

→ 어머니에 대한 교육

→ 평생교육

단계별 교육체계

범교육학에서는 학생들과 모든 사람을 연령과 시기에 맞게 교육해야 하고, 사람은 모두 교육받아야 함.

1. 태아기 학교 : 태아에서 출생까지
2. 유아기 학교 : 출생에서 6세까지 (1월)
3. 아동기 학교 : 6세에서 12세까지 (2월, 3월)
4. 청소년기 학교 : 13세에서 18세까지 (4월, 5월)
5. 청년기 학교 : 19세에서 24세까지 (6월, 7월)
6. 장년기 학교 : 25세 이상 (7월, 8월, 9월, 10월, 11월)
7. 노년기 학교 (12월)
8. 사망기 학교

체코 교육의 변화

- 체코 교육은 전통을 바탕으로 많은 지식인과 지성인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지만 제 2차 세계대전과 소비에트 블록 하에서 정치 변화를 겪으면서, 전통에서 벗어나 전체주의적인 틀에서 획일화됨.
- 호르케스(Horkes)는 "당시 공화국이 모든 교사와 학교들이 신중하게 정립하려 했던 코메니우스의 발전된 생각과 사상에 대해 거의 망각"되어 감을 지적함.
-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모든 체제가 중앙통제하에서 이루어졌고 교육 역시 체제 및 커리큘럼 등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존재함.
- 자유화 이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정비와 개발은 주로 정치와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교육을 비롯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비와 개발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음.

기존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의 방향이 제시

- 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교육 부분의 체계와 교과과목 및 예산 및 집행 등을 비롯한 학생 수와 전공에 대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개별 학교들의 자율과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한다.
- 나. 학문 간의 평등하고 일괄된 지원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재정비한다.
- 다. 중앙통제에 의한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는 사상적인 경우가 많거나 이공계도 시기별 목적에 맞는 수단적인 교육의 형태가 많았다. 따라서 학문별, 전공 분야별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하고 다원화된 연구지원과 교육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라. 공산 정권하에서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만이 존재하였다. 또한 계급과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 입학의 허가가 제한되었고 계급별 할당제를 통한 대학 지원자의 수를 통제, 관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 간의 경쟁은 없었다.

마. 개혁의 시작은 먼저 1990년 ‘고등교육법’이 발효되면서 시작.

- 이 법은 무엇보다 개별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통제하던 교육의 목적, 내용, 학생들의 규모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학에 이전하여 대학 스스로가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교육과 연구의 전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바. 199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

- 대학교들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 이 법으로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고, 대학의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받는다.
- 대학교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학생을 비롯한 사회의 거센 반발과 좌파 계열의 정당들 저항 때문에 수포가 된다.

사. 체코는 1999년 ‘볼로냐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여 2001년 ‘고등교육법 수정안’을 내놓는다. 또한 ‘프라하 성명’ 등의 차후에 발표된 유럽 내 교육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여러 제안을 수용하여, 공동 학제, 대학별 학점 교환제 등을 도입, 정비하기 시작한다.

- 1989년 혁명 당시 백 이십만 명이 약간 넘는 1학년의 수가 20년 만에 4십만 명 정도 늘어남.

특히 대학교육과 같은 고등교육은 2012/13년 기록을 보면 그 수가 두 배로 늘었음.

- 체코의 경우 1990년 이후 ‘학교 교육자의 여성화’가 심화
- 인공지능과 AI의 발전에 따른 변화.

제 7 발표

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 현황, 과제, 전망

홍석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어과)

한국외대 동유럽발칸연구소 2023 겨울 학술대회

**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현황, 과제, 전망**

홍석우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우크라이나의 교육개혁: 현황, 과제, 전망

목차

1. 2022년 전쟁 전 교육개혁
 - 소련 교육의 유산
 - 전쟁 전 교육개혁의 내용
 -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2. 2022-23년 전쟁 중 교육
 -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선 과제
3. 전쟁 후 교육개혁의 과제 및 전망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schoolchildren-caught-crossfire-eastern-ukraines-four-year-conflict-unicef>

2022년 전쟁 전 교육개혁

소련 교육의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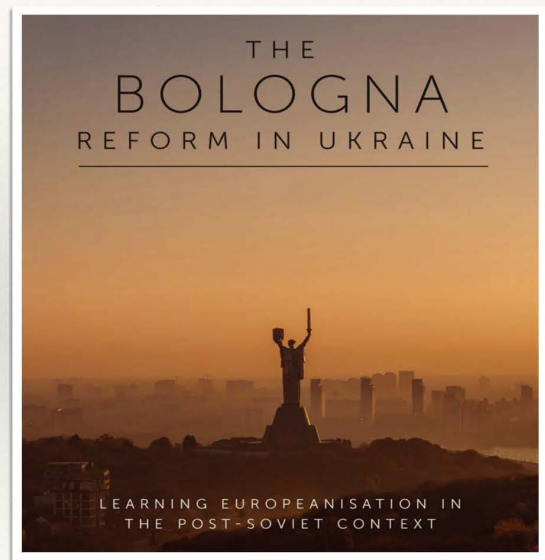
- ❖ 소련 교육시스템의 문제점:
 - ❖ 과도한 중앙집권화
 - ❖ 이데올로기 강조; 정치, 선전용; 민족문화, 전통의 등안시
 - ❖ 외국의 이론과 서방 학자와의 학문적 교류 부족
 - ❖ 학문 분야의 불균등한 발전: 공학, 과학 등 기술 분야는 극도로 발전했지만, 문화 및 인문학 주제를 다루는 과목은 대부분 무시



<https://www.topeducationdegrees.org/wp-content/uploads/2012/10/5-G%C3%87%C2%A3In-USSR-There-Are-Many-New-Schools-In-USA-Schools-Are-Getting-Closed-All-the-Time-G%C3%87%C2%A3-1950s.jpg>

2022년 전쟁 전 교육개혁의 내용

- ❖ 우크라이나 교육 개혁의 방향: **소련식 교육에서 유럽식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 ❖ 2005년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
 - ❖ 고등교육의 질관리; 학생/교사/학자의 학문적 교류, 이동; 교육 및 자격 수준의 표준화; 유럽 학점 전환 시스템 도입 추구
- ❖ 2008년 외부 독립 평가 (External Independent Evaluation Testing, EIT) 도입
- ❖ 2009년 10월 ECTS(The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시스템 도입 시도
- ❖ 그러나 2014년에 비로소 학문(과학) 및 학위 자격 수준에 있어 볼로냐 표준화 과정이 완료됨
- ❖ 2015년 교육과학부(MES)는 교육분석연구소 (Institute of Education Analytics) 설립: 교육시스템의 질적, 양적 상태 연구 및 개선



<https://www.amazon.fr/Bologna-Reform-Ukraine-Europeanisation-Post-soviet/dp/1839821159>

WENR World Education News + Reviews

EDUCATION IN UKRAINE

QUICK FACTS

- Population**
42 million
(2018, 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
- Compulsory Education**
Completion of grade 12
- Language of Instruction**
Ukrainian
(and minority languages in elementary education)
- Academic Year**
September to June

Secondary Grading Scale

Grade Range	Descriptor	WES Conversion
10-12	Excellent	A
7-9	Good	B
4-6	Satisfactory	C
1-3	Unsatisfactory	F

EDUCATIONAL SYSTEM

Note: Not all awards or study patterns are included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S.

2016/2017
Total: 1,817

2017/2018
Total: 1,928

Sour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WES Document Requirements

Secondary Education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or example, *svidostvo pro zdobuttia povinnoi zagalnoi serednoi osvity*) - verified with an apostille through the Information and Image Center (ENIC Ukraine)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Precise word-for-word English translation

Higher Education

Degree Certificate and Academic Transcript - verified with an apostille through the Information and Image Center (ENIC Ukraine)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Precise word-for-word English translations of all documents not issued in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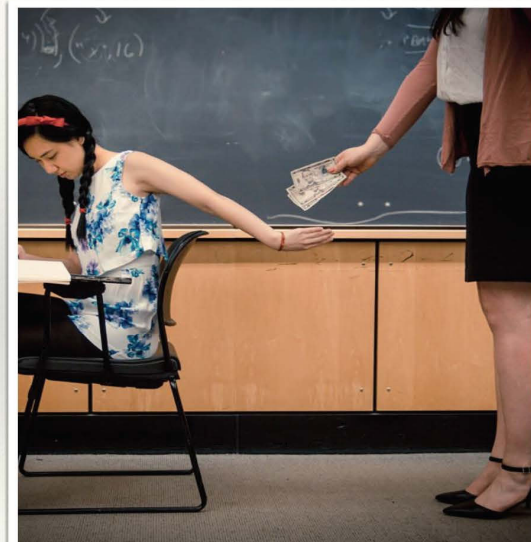
Source: NUFFIC, ENIC

wenr.wes.org

2022년 전쟁 전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1

❖ 교육계 부패

- ❖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20위 차지
- ❖ 유로마이단 혁명 직후 국제투명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인 1/3은 정부기관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뇌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여김.
- ❖ 한 사회학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부패가 증가했다고 믿는 응답자 수가 44%; 또한 44%의 응답자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패가 가장 큰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며, 39%는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
- ❖ 2015년 Guadian 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고 불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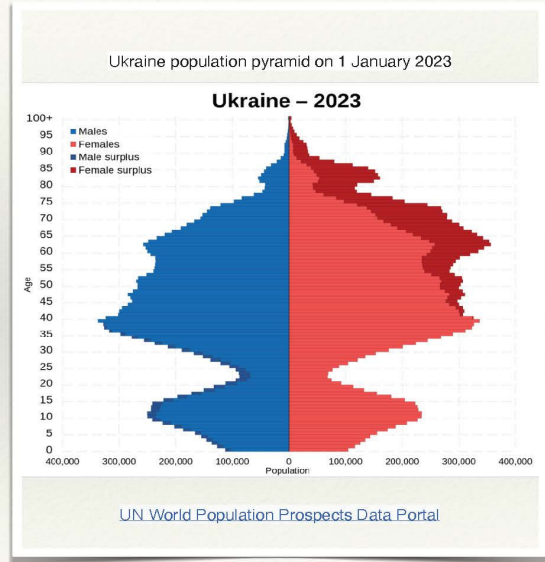


<https://www.borgenmagazine.com/education-ukraine-struggling-legitimacy/>

2022년 전쟁 전 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2

❖ 인구 감소와 축소되는 교육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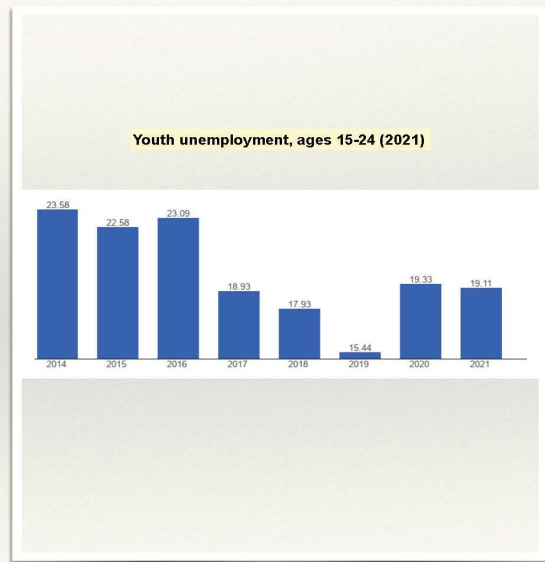
- ❖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 중 하나
-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돈바시 지역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우크라이나 인구 규모는 대폭 축소
- ❖ 이미 1993년~2013년 사이에도 인구는 670만 명 감소
- ❖ 낮은 출산율, 높은 사망률, 대규모 이동 등이 인구 감소 원인
- ❖ U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가 2017년 4,420만 명에서 2050년까지 18% 감소하여 3,64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그러나 2022년 전쟁으로 이미 2023년 기준 3,474만으로 감소.)
- ❖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HEI)의 학생수가 2008년 약 285만 명에서 2017년 167만 명으로 감소; 41% 이상이 감소하여 수백 개의 고등교육기관(HEIs)이 폐쇄
- ❖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및 기타 유형의 HEI 수는 1996년 1,000개 이상에서 2017/18년 661개로 감소
- ❖ 인구 감소와 마을에서 도시로의 이주 현상으로 정부는 최근 지역 학교 학생들을 통합하기 위해 지역 사회 “허브 학교”를 개설



2022년 전쟁 전 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3

❖ 낮은 커리큘럼

- ❖ 우크라이나는 고등교육 총 등록률이 83%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
- ❖ 그러나 교육기관이 유연성이 없고 노동 시장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동떨어져 있음
- ❖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 대신 이론 교육에 집착
- ❖ 청년 실업률(2018년 15-24세, 19.6%)은 일반 생산연령인구의 실업률 보다 훨씬 높음



2022년 전쟁 전 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4

- ❖ 대학의 자율성과 주도권 부족
 - ❖ 구소련의 중앙집권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의 유산
 - ❖ 우크라이나 교육부가 교육 과정의 엄격한 관리 및 재정 분배/사용권 통제
 - ❖ 주립대학은 교직원 급여, 연구 자금 지원,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중요한 분야에서 여전히 정부에 의존
 - ❖ 우크라이나 고등교육기관(HEI)은 재정 문제에 있어 자율권을 갖지 못함
- ❖ 낮은 급여와 장학금으로 교사, 교수, 과학자, 학생의 해외 유출



2022년 전쟁 전 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5

- ❖ 동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 GDP의 감소, 교육분야 예산 삭감
 - ❖ 영토 상실,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상실, 인구의 대이동 등으로 파행적 교육 → 교육의 질 저하
 - ❖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17년까지 1만명 사망, 150만명 이재민 발생, 약 700개 교육 시설의 손상, 폐쇄
 - ❖ 합병되거나 점령된 영토에는 143개의 HEI가 존재(크림과 세바스토폴 시에 36개, 동부 돈바스 지역의 반군 통제 지역에 107개);
 - ❖ 이 지역에는 또한 140개의 연구기관이 존재; 전체 우크라이나 연구 기관의 12% 이상을 대표하고 전체 등록 학생의 31% 차지
 - ❖ 2015년 기준으로 16개 대학과 10개 연구 기관만이 성공적으로 분쟁 지역을 벗어남
 - ❖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교육 및 과학 자원의 상당 부분을 잃음
 - ❖ 도네츠크 국립대학교는 다른 도시로 옮겨 운영을 시작한 최초의 대학; 18,000명의 학생 중 극히 일부만이 우크라이나 중부의 새 캠퍼스에서 교육을 재개; 루한스크 타라스 셰우첸코 국립대학교도 다른 주로 옮겨 최고의 온라인 학습기관이 됨



2022년 전쟁 전 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6

❖ 아웃바운드 학생의 이동성

- ❖ 전쟁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학생 이동성 패턴에 영향을 미침
- ❖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수가 2007년과 2014년 사이 25,432명에서 49,966명으로 두 배 증가; 이후 2017년에는 77,219명으로 급증; 2017/18년에는 83,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 전체 우크라이나 학생 중 해외에 등록한 학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3배 증가하여 2017년에는 4.6%를 기록
- ❖ 급증하는 학생 유출과 인근 국가로의 이동: 폴란드로 이동한 우크라이나 학생수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6,110명에서 29,253명으로 4배 이상 증가; 러시아로는 2012년 10,702명에서 2016년 22,44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 2016/17년도 독일(9,638명)과 캐나다(3,245명)는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큰 목적지 국가
- ❖ 폴란드에 있는 모든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2017년 현재 우크라이나 출신; 불가리아에서는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유학생의 30%를 차지
- ❖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이유: 1) 낮은 학비, 생활비, 고품질 교육, 2) 폴란드 또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며, 폴란드 국내 학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적극 모집, 3) 폴란드 학습 프로그램은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 영어로 제공, 4) EU 회원국에서 유럽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 EU내 잠재적인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음 → 취업후 영구 이주로 두뇌 유출을 악화시킬

2022년 전쟁 전 교육 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7

❖ 인바운드 학생의 이동성

- ❖ 우크라이나 국제교육센터에 따르면, 2018년 154개국에서 온 75,605명의 학생이 우크라이나에서 유학 중
- ❖ 우크라이나 HEI에 등록된 유학생 수가 53,664명에 불과했던 2011년에 비해 41% 증가한 수치
- ❖ 아시아와 아프리카 학생들, 특히 의대생들 사이 학습 목적지로 우크라이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 대부분의 다른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의 학생 등록 비율은 최근 안정세
- ❖ 인도나 모로코와 같은 국가의 학생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급증; 현재 인도는 거의 15,000명의 학생을 파견
- ❖ 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 10곳 중 8곳은 의과대학
- ❖ 인도의 의학 교육은 매우 비싸고 의과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 인도 학생들은 점점 더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덜 비싼 국가로 진출
- ❖ 인종 폭력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비자 취득이 용이하고 생활비는 낮아 선호함
- ❖ 급증하는 유학생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의과대학의 부패 증가와 유학생 강탈 사건의 증가

2022-23년 전쟁 중 교육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1

2023년 1월 20일 현재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자료

3,051 공격에 피해를 받은 교육 기관 수 **420** 완전히 파괴된 교육 기관 수

공격을 받은 교육 기관 중 거의 절반이 중등교육기관 (2023년 1월 20일 현재)

1,259 피해를 받은 중등 교육 기관 수 **223** 완전히 파괴된 중등 교육 기관 수

2022년 4월 현재

605.5 천명의 학생 (전체 학생의 14%) **23** 천명의 교사 (전체 교사의 4%)

2022년 12월 현재 총 13% 학생과 3%의 교사가 해외에 여전히 거주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2

2022년 12월 현재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자료

36% 원격 수업

36% 혼합 수업

28% 교실 수업

전국적 규모의 학부모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의 어린이는 공부를 위해 최소한 1개의 기기, 대체로 핸드폰을 사용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그룹의 대부분은 복지수준이 낮은 계층 자녀 - **69%**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3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85%**

COVID-19와 러시아의 전면적 침입으로 학생들이 겪게되는 지식과 기술의 학습 격차가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음.

24%의 부모는 자녀가 온라인 작업 중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

24%의 어린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언급.

이는 특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어린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이 그룹의 부모 중 약 절반이 이 문제를 언급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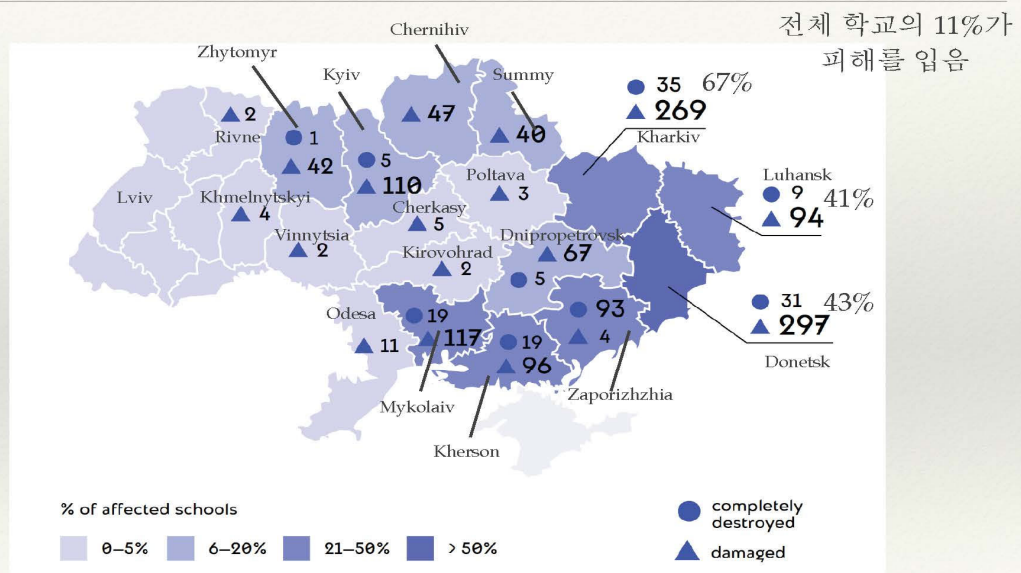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61%**

그들의 자녀가 불면증, 불안증, 집중력 문제, 친구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 증상**을 가지고 있음.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낌.

42%의 부모는 자녀의 불안 증세를 감지

14%의 부모는 자녀가 자주 또는 항상 불안해 한다고 믿음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5



전쟁 중 교육의 피해상황 6

❖ 피해의 정도 구분:

- ❖ 건물이 최대 40% 부서졌고, 현재 또는 주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건물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
- ❖ 건물의 40% 이상이 손상된 경우 건물은 파괴된 것으로 간주하며 대대적인 수리, 재건축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봄.

❖ 손상 유형:

- ❖ 지붕 파괴(구멍, 균열, 완전한 파괴);
- ❖ 구조적 바닥과 벽의 파괴(구멍, 붕괴, 균열);
- ❖ 통신 파괴: 물 공급, 하수, 난방 시스템, 전기 배선;
- ❖ 교실 및 공유 공간의 파괴(깨진 창문, 문, 조명, 파편, 화재, 연기 또는 물에 의한 손상/파괴, 벽, 바닥, 천장 덮개 및 재산)



분실물 하르키우의 예

969 pieces of laboratory equipment	1684 computers	91 interactive whiteboards
219 projectors	287 TV sets	7565* pieces of other electronic equipment

* including 1,514 pieces of equipment purchased to implement the NUS reform in recent years

2차 피해

“우리는 아직도 [2022년 12월] 교실로 날아든 파편을 발견하고 있으며, 심지어 벽도 갈라져 있습니다. 창문에 작은 구멍이 난 것 같은데 교실 곳곳에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가 상당합니다.” (키이우 주, 교장)

약탈: 학교 버스

학교 버스도 점령과 전투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분실된 학교 재산 중 하나이다. 총 1,874대의 스쿨버스가 점령 기간 동안 파괴, 손상, 분실, 대피 또는 군대의 필요를 위해 이송되었다. 이러한 스쿨버스는 특히 Kharkiv 주에는 151개, Chernihiv 주에는 25개, Kyiv 주에는 62개가 있다. 인터뷰한 교육자들에 따르면, 점령 기간 동안 스쿨버스는 약탈당했다.

“기본적으로 점령자들은 우리 버스를 분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자 제품과 배터리를 찢고, 모든 좌석을 제거하고, 거울을 제거하고, 전면과 측면의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Chernihiv 주, 교장)

정전

교사들은 정전 일정에 맞춰 일부 수업을 전력이 공급되는 시간으로 옮기는 등 일정을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정전으로 인해 수업 시간도 단축되었다. 학부모에 따르면 교사들은 빛과 의사소통의 문제에 공감하고 할당된 과제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안문제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공습 경보가 15,000회 발령되었으며, 평균 지속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법에 따라 공습 경보 기간 동안에는 수업이 열리지 않는다. 교실 또는 혼합 학습 방식에서 수업 중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은 대피소로 내려간다. 학생들이 집에 있는 동안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은 안전한 장소나 대피소에 머물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요청된다. 동시에, 원격 학습의 맥락에서 교사들은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청한다.

모든 것이 안정된 후에는 일정에 따라 수업이 재개된다. 교사들은 공습 경보로 인해 시간이 없어 다루지 못한 자료를 따라잡기 위해 때때로 추가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선 과제

❖ 교육 인프라의 재건

- ❖ 중등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과 복원 필요
- ❖ 각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인프라가 손상된 지역에서 인터넷, 컴퓨터, 전원 공급 장치 등 원격 교육에 대한 접근 수단복원
- ❖ 호로마다는 피해 정도를 조사, 분석을 통해 학교 건물을 보존하고 기상 변화로 인한 2차 피해(지붕, 벽, 창문, 문 등)를 방지함
- ❖ 호로마다와 주들은 교육 네트워크 개발하여 양질의 교육 제공
- ❖ 주 및 지방 예산, 유럽 연합(EU), 국제 및 자선 단체에 의해 재정지원에 힘입어 학교는 대피소를 건설 및 수리하고, 학교 버스를 구입하며 교사들에게는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
- ❖ 국제 및 자선 단체는 주로 지역 및 호로마다 수준에서 지방 정부와 협력, 교육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지원을 제공
- ❖ 교육센터, 모듈식 학교, 포격에 살아남은 공공건물의 임시 교실 개설
- ❖ 학교가 파괴된 호로마다에서 혼합 모드 학습 기회 창출
- ❖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원격으로 공부하는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원격 학습에 적합한 교육 자료(종이 교과서 포함)와 장치 제공
- ❖ 교사들은 기기와 인터넷 외에도 원격 학습을 위한 방법론적 지원도 필요

전쟁 후 교육개혁의 과제 및 전망

현재의 과제와 국제 교육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쟁 중,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교육 변화 모델

Areas of implementation 시행분야	Education transformations 교육혁신	Relevant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다른나라의 경험
교육 시스템의 손실과 격차 극복	- 개인 수준의 교육 손실 진단 - 커리큘럼 맞춤화 - 교사, 여름 학교를 위한 추가 개인 및 그룹 교육 시간 - 온라인 튜터링 플랫폼 - 교육적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학습 자원	- 스웨덴, - 마니토바(캐나다), - 에스토니아
의무교육 기간 연장	신우크라이나 학교 개혁 지속의 틀 안에서 12년 의무 교육으로 전환	핀란드
교육내용 업데이트	핵심역량 기반 교육 콘텐츠 구현	- 에스토니아, -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국가 정체성 개발을 위한 우크라이나어, 문학, 역사, 지리 학습 프로그램 업데이트 - 외국어 구사력 강화 - 과학 및 수학 교육(STEM) 강화	에스토니아
	사회정서적 능력 개발, 웰빙 학습	- 아일랜드, - 마니토바(캐나다), - 포르투갈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위한 교육적, 방법론적 지원 개발 및 학생의 교육 성취도 평가	- 업데이트된 교육 내용에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디지털 형식의 확장된 교육 및 방법론 자료의 수반 필요 - 역량평가를 위한 자료 개발	- 아일랜드, - 포르투갈

Areas of implementation 시행분야	Education transformations 교육혁신	Relevant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다른나라의 경험
교사 및 교장의 전문성 개발	- 교육 내용의 새로운 표준 사용, 역량 기반 접근 방식, 사회적 및 정서적 기술 개발, 삶의 탄력성 형성 및 올바른 보장과 관련된 개혁의 요구에 따라 교사 및 학교 지도자의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함 - 변화의 실행에 대비하여 교사와 교장에게 각각의 교육 자원 지원	- 아일랜드, - 마니토바(캐나다) - 포르투갈, - 핀란드, - 스웨덴
안전하고 발전적인 교육 환경 조성	- 모든 학교에 안전한 대피소를 마련 - 교육 공간을 갖추기 위한 최신 설계로 파괴되고 손상된 교육 시설을 재건 '신 우크라이나 학교' 개혁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학교의 장비 지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재개	
	- 학생과 교사에게 체계적인 심리 상담 지원 - 개인, 그룹, 학교 차원에서 학생 복지 정책 시행	아일랜드
교육의 디지털화	- 교육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 - 인터넷 연결 보장, 교사와 학생에게 충분한 수의 디지털 기기 제공, 학생과 학부모의 피드백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관리시스템(LMS) 구현 - 교육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 교육 자원 개발 - 교육자원 검색을 위한 단일 전자교육플랫폼 구축 - 교사와 학생의 정보 및 디지털 역량 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에스토니아, - 포르투갈

Areas of implementation 시행분야	Education transformations 교육혁신	Relevant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다른나라의 경험
양질의 교육, 포용적인 교육 환경 구축 및 평등한 접근 보 장	- 인구통계학적 과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교 네트워 크 구축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 모든 교육시설에서 포용적인 교육 환경 구축(장애물 제거, 상호 이해 구축, 갈등 해소) - 특수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는 물론 전쟁의 결과로 영 향을 받은 다양한 그룹의 어린이와 함께 포용적인 환 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 - 학교 및 포괄적 자원 센터 네트워크에 포용성을 보장 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전문가 교육	- 에스토니아, - 아일랜드, - 스웨덴
교육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교육 개혁 및 변화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학교 내부 자체 평가를 보장하여 변화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별 조정을 수행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초 등 및 기본 중등 교육을 마친 후 최종 외부 평가를 실 시 - 역량과 사회 정서적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학생 포트 폴리오 및 기타 방법 적용	- 아일랜드, - 포르투갈, - 스웨덴, - 마니토바(캐나다) - 핀란드

참고문헌

- ❖ David Kirichenko (18 May, 2023) "Ukraine's Education System: The Impact of war on a Generation of School Children." Vox Ukraine.
- ❖ Eric Roach (June 25, 2019) "Education in Ukraine," WENR; <https://wenr.wes.org/2019/06/education-in-ukraine> (검색일: 2023.10.10)
- ❖ Hanna Bondarenko (2022) "Ukrainian Education in Wartime: Challenges and Problems," *існик ХНУ імені В. Н. Каразіна. Серія «Історія», вип. 62.*
- ❖ Iryna Kohut and others (2023), War & Education: How a year of the full-scale invasion affected Ukrainian schools, International Renaissance Foundation. 140 pp.
- ❖ Liliia Hrynevych (2023) "The state of education in Ukraine and steps for future progress," Learning during Crisis: Institutes for Ukraine from across the Globe, OECD.
- ❖ Valentina V. Shevchenko (2019), "The reform of the higher education of Ukraine in the condition of the military-political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65, pp. 237-253.
- ❖ Головна. Міністерство освіти і науки України <https://mon.gov.ua>

제 8 발표

체제 전환 이후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

이옥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들어가는 말

체제 전환 이후 지난 30년 동안 폴란드 교육제도는 구조와 조직, 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가장 큰 개혁은 1999년과 2017년에 이루어졌다. 1989년 이후로 폴란드에서는 비공립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스타빈스키(Stanisław Stawiński)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학교 개혁 사무국(Biuro do spraw Reformy Szkolnej)’이 설립되었다(Śliwierski 1999).

1999년에는 국가 교육부(Ministerstwo Edukacji Narodowej)가 준비한 ‘교육제도 개혁 프로젝트(Projekt reformy systemu edukacji)’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폴란드 교육제도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폴란드 사회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학생들의 교육 방향에 관한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Reforma Systemu 1998). 2017년 교육제도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학교 폐지와 더불어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8학년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1999년과 2017년에 이루어진 폴란드 교육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에 내려진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1980년대 교육제도의 특징

폴란드 교육제도의 변화는 1980년 이후 폴란드에 일어난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다. 폴란드에 내려진 계엄령(stan wojenny, 1981.12.13.~1983.07.22)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교육 자금 조달은 거

1) 바웬사(Lech Wałęsa, 1943~)가 이끄는 자유노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폴란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야루젤스키(Wojciech Jaruzelski, 1923~2014) 장군은 계엄령을 선포했다(1981년 12월 13일). 이후 야루젤스키는 21명의 장교로 구성된 ‘민족 구제 군사 협의회(WRON: Wojskowa Rada Ocalenia Narodowego)’ 발족시키고 본인이 의장을 맡으며 이를 폴란드 최고 집행기구로 삼았다. 1982년 12월 31일 계엄령이 정지되었으며, 1983년 7월 22일에 해제되었다.

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교육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서적 출판사는 폐쇄되었다(Ćwikliński 2005: 298).

1987년 2월 25일 국민교육전문위원회(Komitet Ekspertów do spraw Edukacji Narodowej)가 설치되어 국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건방향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국민교육 발전 현황과 방향에 관한 보고서(*Edukacja narodowym priorytetem. Raport o stanie i kierunkach rozwoju edukacji narodowej Polskiej Rzeczypospolitej Ludowej*, 1989)”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국가적 우선순위에 두고, 위기에 놓인 폴란드의 교육 상태를 드러냈다. Kupisiewicz(1996: 115-116)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학교 시스템의 구조, 교육 프로그램 및 방법론적 개념의 일관성 부족, 교육 재정 조달의 심각한 결점 및 충분한 연계 부족에 있다고 말한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교육부 장관이었던 삼소노비츠(Henryk Samsonowicz, 1930~2021)는 사립 및 사회, 종교 학교의 창설을 장려하고 학교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폴란드 어와 역사, 사회 교과서를 개정하고 교사의 급여를 인상하였으며, 학교 조사관을 폐지하였다. 또한 교사가 커리큘럼을 선택하고 교육학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혁신적인 수업에 사용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Śliwerski 1999).

1991년에는 스와빈스키(Stanisław Ślawiński, 1948~)를 수장으로 하는 학교 개혁 사무국(Biuro ds. Reformy Szkolnej)을 설립하고, 전문가 및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훌륭하고 현대적인 학교(Dobra i nowoczesna szkoła)”라는 교육 개혁 프로젝트를 시행했다(Śliwerski 1999).

차기 교육부 장관인 그웬보츠키(Robert Głębocki, 1940~2005)는 전임자의 행보를 이어나갔다. 국가의 교육 독점이 폐지되었고, 교사는 커리큘럼과 교과서, 교재의 작성 및 선택에 있어 완전한 자율권을 얻었지만, 이는 나중에 폐지되었다.

교육 분석 및 예측부(Departament Analiz i Prognoz Edukacyjnych)는 “필수 일반 교육 과목을 위한 핵심 커리큘럼 프로젝트(Podstawy programowe obowiązkowych przedmiotów ogólnokształcących)”를 만들어 21개 교육 분야와 교육 내용 및 학생의 역량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모든 교육 단계에 대한 핵심 커리큘럼 및 시험에서 요구하는 표준항목도 개발되었다. 의무교육이 18세까지 연장되었고, 교육 재정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육 단계가 끝난 후 학교 유형을 변경하고 외부 시험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Śliwerski 1999).

이 개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3. 1999년 교육 개혁

1999년 9월 1일 시행된 폴란드 학교교육제도 개혁은 1968년부터 시행된 2단계 교육체제를 3단계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 개혁은 예지 부젝(Jerzy Buzek, 1940~2005) 정부²⁾가 개발하고 시행한

4가지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개혁의 창안자는 당시 국가 교육부 장관인 미로스와프 한드케(Mirosław Handke, 1946~2021)였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이 개혁을 언론에서는 한드케 개혁(Handke refor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폴란드의 정치적 변화 이후 논의되어 왔다. 1991년 9월 7일, 폴란드 의회(Sejm)는 폴란드 인민공화국 시대에 채택된 교육제도를 관리하는 규정을 대체하는 학교교육법(Ustawa z dnia 7 września 1991 r. o systemie oświaty)을 통과시켰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혁을 준비하였다.

- 이른바 핵심 교육과정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한다.
- 8학년 이후 시험 실시 방식을 “선택적”에서 “예후적”으로 변경한다.
- 대학 입학시험을 대체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 절차의 변경은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전문 시험관이 평가한다.
- 학교 교육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6년제 초등학교
 - 3년제 중학교
 - 3년제 고등학교.

개혁의 결과로 초등교육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단축되었고, 다음 단계는 3년제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 3년제 일반고등학교(LO: liceum ogólnokształcące),
- 3년제 특수중등학교(LP: liceum profilowane, 2002~2014년 운영),
- 4년제 기술전문학교(TZ: technikum zawodowe),
- 2~3년제 기초직업학교(ZSZ: zasadnicza szkoła zawodowa).

일반고등학교 및 기술전문학교 졸업생은 학교 졸업 후 즉시 졸업인증시험인 마투라(Matura)에 응시할 수 있으며, 기초직업학교 졸업생은 2년제 보충일반고등학교³⁾ 또는 3년제 보충기술중등학교⁴⁾를 수료하면 마투라에 응시할 수 있다.

2012년 9월 1일, 2011년 8월 19일 학교교육법과 일부 법률을 개정하는 법이 발효되어 2014년 9월 1일까지 3년제 특수중등학교와 2년제 보충일반고등학교가 폐지되었다. 2017년 9월 1일, 2016년 12월 14일 법이 발효되었다. 이는 학교교육법 및 학교교육법 도입 규정으로 이것은 1999년에 도입된 중학교의 점진적 폐지로 나아가는 교육제도의 새로운 개혁을 말한다. 8년제 초등학

2)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1년 10월 19일.

3) uzupełniające liceum ogólnokształcące

4) technikum uzupełniające, 현재 성인 일반고등학교(liceum ogólnokształcące dla dorosłych)

교와 4년제 일반고등학교, 5년제 기술전문학교의 복원 및 기초직업학교를 1급 및 2급 분야별 전문학교로 나누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교육제도 개편의 결과로 설립된 중학교가 2019년 9월 1일, 운영 20년 만에 폐교되었다. 2019년 8월 31일은 폴란드 학교 교육에서 중학교가 기능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법률 개정

- 1998년 7월 25일 학교교육법 개정안(Dz.U. z 1998 r. nr 117, poz. 759)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81170759>)
- 1999년 1월 8일 법안 - 학교 제도 개혁을 도입하는 규정(Dz.U. z 1999 r. nr 12, poz. 96)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90120096>, 이후 개정됨)
- 새로운 학교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기존 초등학교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법 및 마감일에 대한 1999년 2월 15일 국가 교육부 장관 규정(Dz.U. z 1999 r. nr 14, poz. 124)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90140124>)

개혁에 대한 비판

1999년 교육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중학교 설립의 결과로 학생들 사이의 공격성 증가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동의 출현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 직업교육의 소외.

1999년 개혁이 도입되었을 당시, 개혁을 비판한 사람 중 한 명은 당시 폴란드 교원 노조 회장이었던 스와보미르 브로니아쉬(Sławomir Broniarz)였다. 그는 국가 교육부 건물을 점거하고 1999년 교육노동자 파업과 개혁에 반대하는 23만 명의 서명을 모으기 등을 조직했으며, “가제타 스토웨츠나(Gazeta Stołeczna)”의 지면을 통해 이는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1998년 7월 25일, 당시 폴란드 인민당(PSL: Polskiego Stronnictwa Ludowe) 의원 전원, 민주좌파동맹(SLD: Sojusz Lewicy Demokratycznej) 의원 35명, 연대선거행동(AWS: Akcja Wyborcza Solidarność) 의원 6명, 자유연합(UW: Unia Wolności)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의회에서 개혁을 도입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중학교 폐지는 2010~2013년에 존재했던 정당 ‘폴란드는 가장 중요하다(PJN: Polska Jest Najważniejsza)’⁵⁾의 선언문에서 가정되었으며, 2013년에 SLD가 이를 공식화하

5) 이후 야로스와프 고빈(Jarosław Gowin)과 함께 폴란드 투게더(PR: Polska Razem)의 기반이 되었다.

고, 좌파 연합(Zjednoczona Lewica)이 지지하였다.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2014년 프로그램에서 1999년 교육 개혁의 효과 철회와 8년제 초등학교와 4년제 고등학교, 5년제 기술학교의 복귀와 중학교 폐지를 요구했다.

4. 2017년 교육 개혁

2017년 9월 1일부터 폴란드에서 쉬드오(Beata Szydło) 정부와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정부의 국가 교육부 장관 안느나 잘레프스카(Anna Zalewska)가 주도한 교육 구조 개혁이 시행되었다.

공식 문서 “2014 법과 정의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를 4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발표가 포함되어 있다. 예지 부젝 정부와 당시 교육부 장관 한드케가 개발하고 시행한 4가지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도입된 1999년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은 1968년부터 시행된 2단계 교육제도를 3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설립으로 인해 학생들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잊고 새로운 자료를 배우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직업교육이 소외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PiS는 2014년 프로그램에서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접근 및 1999년 교육 개혁의 효과를 철회하고, 8년제 초등학교 및 4년제 고등학교, 5년제 기술고등학교로의 복귀와 중학교 폐지를 촉구했다. 2015년 시장사회연구소(IBRiS: Instytut Badań Rynkowych i Społecznych)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70%가 중학교 폐지와 8년제 초등학교로의 복귀를 원했다.

학교 교육 구조 변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8년제 초등학교(szkola podstawowa)

그런 다음 선택하려면:

- 4년제 일반고등학교(liceum ogólnokształcące)
- 5년제 기술학교 (technikum)
- 3년제 1급 분야별 전문학교(szkola branżowa II stopnia)
- 2년제 2급 분야별 전문학교(szkola branżowa II stopnia)

2017/18학년도부터는 현 중학교 1학년 및 기초직업학교(1급 분야별 전문학교로 전환) 모집이 없었다. 2019년 8월 31일은 학교 교육에서 이들 학교가 운영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번 개혁은

2016년 12월 14일 제정된 학교교육법과 2016년 12월 14일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2017년 1월 9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1972~)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1월 11일 “지엔느닉 우스타브(Dziennik Ustaw)”에 게재되었다. 국가 교육부는 <http://reformaedukacji.men.gov.pl>⁶⁾를 통해 교육 개혁에 관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2017 학년도에는 국가 교육부에서 발효된 대로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다 (Szczepanek 2017: 36).

- 6세 의무교육 폐지
- 초등학교 6학년 시험 폐지
- 관료주의 철폐
- 비공립 학교에 대한 보조금 제도 강화
- 고등학교 졸업인증시험 및 전문직 직업 자격 확인 시험 결과에 독립 시험 중재 위원회에 항소
- 학교를 위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시범 시행
- 학교 매점에 관한 규정 개정
- 통합자격제도 시행
- 교육교수직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사례금 일원화
- 교사를 징계하는 결정에 대한 중앙 등록부 도입

2017년 10월 27일, 폴란드 의회는 교육 과제 재원 조달 및 국가교육망 법(Ustawa o Ogólnopolskiej Sieci Edukacyjnej)을 통과시켰다. 교육 과제 재원 조달에 관한 법률은 무엇보다도 폴란드의 학교 재정 조달 원칙을 규제하고 이 분야의 기존 방안을 간소화하며, 무엇보다도 유치원 보조금, 교과서 보조금, 지방정부 예산 보조금, 교육 보조금, 사회 복지 자금 조달, 교사 근무 시간 분야, 직업 승진 및 성과 평가, 부모 권리, 휴가 관련 범위에 새로운 방안 도입을 목표로 한다. 국가교육망 법은 공공통신망인 국가교육망의 수립 및 재원 확보 및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 네트워크의 운영자는 초중등학교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전국교육망 개편 준비 사법이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10월 27일 교육 과제 재원 조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6) <https://web.archive.org/web/20201220135525/http://reformaedukacji.men.gov.pl/>

법률 개정

- 2016년 12월 14일 법안 - 교육법(Dz.U. z 2023 r. poz. 900)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30000900>))
- 2016년 12월 14일 법 - 법 도입 조항 - 교육법(Dz.U. z 2017 r. poz. 60)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70000060>)) 수정됨)
- 교육 과제 재원 조달에 관한 2017년 10월 27일 법안(Dz.U. z 2023 r. poz. 1400)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30001400>)
- 국립 교육 네트워크에 관한 2017년 10월 27일 법안(Dz.U. z 2022 r. poz. 2454)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20002454>)
- 유치원 교육의 핵심교육과정 및 중등도 또는 중증 지적장애 학생을 포함한 초등학교 일반 교육의 핵심교육과정, 1급 분야별 전문학교 일반 교육, 취업을 준비하는 특수학교의 일반 교육 및 고등학교의 이후의 일반 교육에 대한 2017년 2월 14일 국가 교육부 장관의 규정 (Dz.U. z 2017 r. poz. 356)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70000356>)
- 일반고등학교 및 기술학교, 2급 분야별 전문학교의 일반 교육을 위한 핵심교육과정에 대한 2018년 1월 30일 국가 교육부 장관 규정(Dz.U. z 2018 r. poz. 467)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80000467>)

개혁에 대한 비판

교육의 변화는 일부 언론과 일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존에 중학교 3년 동안 도입된 교재가 초등학교 2년 후반에 교육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노력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한 중학교의 폐지가 작은 마을 출신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개혁 도입 전후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많았다. 교육 개혁 초기부터 일부 의회 야당(시민 플랫폼 Platforma Obywatelska, 노보체스나 Nowoczesna, 폴란드 인민당 Polskie Stronnictwo Ludowe)의 일부, 일부 노동조합(ZNP) 및 ‘학교 대란은 없다 (Nie dla chaosu w szkole)’ 협회는 교육 개혁에 비판적이었다. 비평가들은 또한 6세 어린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그들의 주장 중 하나는 유럽 24개국에서 의무교육이 4세에서 6세 사이에 실시된다는 사실이다. 2017년 4월 24일, 쿠키즈15(Kukiz'15)⁷⁾의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파베우 쿠키즈(Paweł Kukiz, 1963~)는 언제든 두다 대통령에게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명령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제안은 폴란드 교원 노조에 의해서도

7) 파베우 쿠키즈가 2015년 의회 선거 이전에 설립한 폴란드 정치 단체. 중도우파 정당.

제기되었다. 2017년 4월 20일, 폴란드 교원 노조와 의회 야당이 추진하고 지원하는 시민 국민투표 발의안은 교육 개혁에 대한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시민 발의안에 따라 910,500명 이상의 서명을 의회에 제출했다. 2017년 7월 19일 국민투표 시행동의안이 1차 독회에 제출되었고, 2017년 7월 20일 2차 독회에서는 법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를 중심으로 2017년 9월 17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시행동의안을 거부했다. 2017년 3월 CBOS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개혁에 찬성했지만 24%가 반대했다. 동시에 교육의 변화가 희망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34%는 희망이 있다고 답했고, 31%는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있다고 답했다. 또한 27%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우려를 표명한 사람 중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약간 더 많았다(32% 대 30%).

교육 개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교과서 부족

핵심 커리큘럼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2017/2018학년도 초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안느나 잘레프스카 국가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이에 대한 책임은 주문을 늦게 한 학교 교장에게 있었다. 출판사 노바 에라(Nowa Era)의 대변인 아그니에쉬카 말렉(Agnieszka Mallek)은 교과서 부족은 일부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학교가 9월이 되어서야 교과서를 주문했다”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 핵심교육과정 작성자의 이름 은폐

교육부는 새로운 핵심교육과정 기초 수립에 참여한 170명 이상 사람들의 이름을 분류했다. 2016년 10월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실무팀의 리더가 누구인지만 공개됐다. 잘레프스카 장관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초의 최종 형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교육부에 불리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지방행정법원은 핵심 교육과정의 작성자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교육 공간(Przestrzeń dla Edukacji)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핵심교육과정 작성자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 지방정부의 약화

2015년 12월에는 교육감의 역할이 법으로 강화되어 학교를 완전히 통제하고 교장을 임명하며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 권한을 우회할 수 있게 하였다.

- 학년 중복

교육 개혁으로 인해 2019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2개 학급이 동시에 입학하였고, 이는 총 70만 명의 학생에 이른다. 국가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별도의 학급에서 활동해야 했다. 교육부는 또한 2019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경쟁한 중학교 8~3학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정보 캠페인을 준비했다. 언론에서는 고등학교 지원 가능성과 과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원 가능한 자릿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원자가 있어 좋은 고등학교의 대부분 자리(때로는 지원 가능한 모든 자리도) 올림피아드 우승자만이 차지했으며, 올림피아드와 대회에서 우승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혼잡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우선으로 복도에 일방통행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개혁 지지자들은 고등학교에 자리가 부족한 것을 이전에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분야별 전문학교(구 직업학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고, 더 나은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 기관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희망했다.

- 프로그램 따라잡기

당시 아동 권리 옴부즈맨인 마렉 미할락(Marek Michalak)은 우려하는 학생 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언급하면서 초등학교 7학년의 어린이는 초등학교 2년 동안 3년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드 시간’ 폐지

주당 추가 2시간은 폐지되었으며, 폴란드 교사 연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재능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반면, 약한 학생들은 보충 수업에 의존할 수 있었다.

- 교사 해고

폴란드 교원 노조 회장 스와보미르 브로니아쉬(Sławomir Broniarz)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1차 변동의 결과로 65,000명의 교사가 해고되었고, 18,500명 이상의 교사가 퇴직하거나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다.

- 심리학자의 부족

“가제타 비보르차(Gazeta Wyborcza)”에 따르면 학교는 9월부터 학생들에게 심리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

- 재정 부족

TVN24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홈스쿨링 자금의 40%가 삭감되었다.

- 헌법 원칙 위반

법률 학술 문헌에서는 이 개혁은 폴란드 공화국 헌법 제2조에서 파생된 특정 입법 원칙 (국가와 법률에 대한 신뢰의 원칙, 진보의 이익 보호 및 적절한 공석 입법)을 위반하여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개혁 효과에 대한 의견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에 따르면, 이른바 교육 개혁은 미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변인은 지방정부 교육기관 전문가들의 의혹이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 안제이 스타니스와벡(Andrzej Stanisławek)은 어떤 학교에도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해외에서 적합한 학교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많은 부정적인 의견 끝에 차관은 사임했다.

다리우스 피온트코프스키(Dariusz Piontkowski)에 따르면, 폴란드 학교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Fakty TVN과 TVN24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개혁의 효과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 25%의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 바르샤바 시장인 라파우 트자스코브스키(Rafał Trzaskowski)는 PiS가 많은 어린이들의 꿈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당시 국가 교육부 장관이었던 안느나 잘레프스카는 개혁안을 채택하는 동안 발생한 교육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최대 20개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라파우 트자스코브스키의 결정으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말했다. Onet.pl과의 인터뷰에서 전 교육부 장관은 개혁이 계획되고 계산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되풀이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저녁에 끝났다.

참고문헌

- Ćwikliński, A. (2005) *Zmiany w polskiej edukacji w okresie globalizacji, integracji i transformacji systemowej*. Poznań: Wyd. UAM.
- Edukacja narodowym priorytetem. Raport o stanie i kierunkach rozwoju edukacji narodowej w PRL* (1989). Warszawa, Kraków: PWN.
- <https://www.mac.pl/zmiany-w-oswiacie#HARMONOGRAM> (검색일: 2023.11.15).
- Kupisiewicz, C. (1996) *Koncepcje reform szkolnych w latach osiemdziesiątych*. Warszawa: Żak.
- Reforma systemu edukacji. Projekt* (1998) Warszawa: WSiP.
- Szczepanek, M. (2017) *System edukacji Polski i Włoch – analiza porównawcza*. Praca licencjacka, promotor: dr W. Lib, Uniwersytet Rzeszowski.
- Śliwerski, B. (1999) “Remanent reformowania oświaty w III RP.” *Edukacja i Dialog* 3: 30–36.
- Walat, W. (2017) “Założnia modelu edukacji na podstawie idei kognitywizmu i konstruktywizmu.” *Lubelski Rocznik Pedagogiczny* 36(4): 109–121

제 9 발표

EU통합 전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

이상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통합 이전 헝가리 학제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
3. 통합 이후 헝가리 학제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
4. 통합이 헝가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성과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 헝가리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학제와 유사한 학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EU통합 이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의 상호인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1999년 볼로냐 선언은 유럽고등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고, 헝가리 고등교육 학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헝가리의 학위제도를 변화시켰고, 내용적으로도 그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제도적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학점 및 교육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헝가리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성과 상호인정이 보장됨으로써, 헝가리 학생들에게 유럽연합 내의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헝가리 교육의 변화가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2년 기준, 헝가리 고등교육의 입학률은 7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인 58%를 상회한다. 또한, 헝가리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헝가리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세게드 대학은 501-510위권에 올랐다. 물론,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가 전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헝가리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육 기관

에서는 교수진의 질이나 교육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EU통합 이후 헝가리 교육은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헝가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EU통합 이후 헝가리 교육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EU통합이 헝가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통합 이전 헝가리 학제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

중세 초기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의 산실이었던 교회나 수도원은 학문의 중심지였다. 996년 헝가리 펀논할머(Pannonhalma) 지역에 설립된 헝가리 최초의 수도원에는 베네딕트 수도승들에 의해 헝가리 최초의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다.¹⁾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은 헝가리 첫 교육기관을 이곳에 설립하고 헝가리 인들을 교화시켰다. 13세기에는 헝가리 최초로 법률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대성당 소속의 학교가 도시 베스프렘(Veszprém)에 세워져 1276년까지 운영되기도 했다.²⁾ 프라하(1348년), 크라코프(1364년), 비엔나(1365년)에 대학이 설립되자, 1367년 루이스(Louis) 대왕에 의해 헝가리 최초의 대학이 남부 도시, 페치(Pécs)에 설립되었다. 비테르베(Viterbe)에서 교황 우르반(Urban) 5세에 의해서 발행된 설립증서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이 대학의 조직은 볼로냐 대학을 모델로 하였고, 볼로냐 대학 법학 교수로 알려진 갈바노(Galvano di Bologna)가 페치 대학에 다녀가기도 했다. 헝가리 오부다(Óbuda) 대학은 1395년 교황 보니파스(Boniface) 9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헝가리 왕 마차시(Matthias, Corvinus) 1세는 볼로냐 대학을 모델로 포조니(Pozsony, 현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1465~67년 사이에 대학을 설립하였다. 1478년 마차시 왕은 당시 유니버설 김나시움(Universal Gymnasium)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도미니크(수도)회 신학교를 설립하였지만, 이 학교는 대학으로까지 발전하진 못했다. 1526년 헝가리가 오스만-터키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헝가리 교육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하였다. 14-15세기에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헝가리 교육기관들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로 변화하고,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기초교육 및 실용과학이 강조되었다. 이후 1530년대 종교개혁 사상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면서 헝가리에서도 모국어에 의한 교육 및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기숙학교와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헝가리 역사에서 17세기는 오스만-터키 축출 노력의 실패, 종교적인 대립상의 첨예화, 오스만-터키와 합스부르크 사이에서 국력의 쇠진,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신대륙 발견 이후 세계 시장 여

1) 초기에는 헝가리 출신 수도사들이 없어서 독일, 이탈리아, 보헤미아 출신의 외래 수도사들이 많이 헝가리에 들어왔으나 게저(Géza) 군주 때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베네딕트 교단 계통의 수도원이 이슈트반 1세(I. István)에 의해 완성되어 1040년 이후부터는 헝가리 인 출신의 수도사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2) Bakos István, p.44.

건의 변화 등으로 ‘몰락의 세기’라고 칭해진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헝가리 지식인들은 민족의식을 일깨워 헝가리 문화를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트랜실바니아 공국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다. 트랜실바니아 공국의 군주인 베틀렌 가보르(Bethlen Gábor)는 지주들이 자신의 영지에 속한 농노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하였으며, 지식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도록 했다. 농노 출신으로서 학업을 통해 성직자가 된 사람들에게 베틀렌은 ‘학문과 무기를 가지고 투쟁하자’는 구호와 함께 귀족 신분을 갖도록 했다. 라코치(Rákóczi) 가문도 1650년에 샤로슈퍼터크(Sárospatak)에 칼뱅교 신학교를 설립했으며, 이 신학교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교육과 함께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을 전수하며, 이어서 대학 수준의 고급 교육 기관으로 발전해 나갔다. 서유럽으로부터 전해진 시민 정신 조류는 신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수용되어 헝가리 동부 도시들에 위치한 칼뱅교 신학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널리 전파되어 나갔다. 예수이트 교단에 속하는 파즈마니 페테르(Pázmány Péter)에³⁾ 의해 1635년 철학부와 신학부 외에도 법학부까지 갖춘 대학이 너지솜버트(Nagyszombat)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수차례에 걸친 이전을 거친 뒤 현재의 부다페스트 대학교(정식명칭은 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 ELTE)로 발전하여 지속되어 오고 있다. 1735년에는 유럽 최초의 광업 교육기관이 헝가리 셀메츠 광산(현,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 설립되었다.

헝가리 교육기관의 편제와 교육과정은 1777년과 1806년에 발표된 라치오 에두카치온스(Ratio Educationis)에 따라 표준화 되었다. 이를 토대로 헝가리에서는 국가차원의 교육기관 시스템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1806년부터 시행된 의무 교육 제도는 헝가리 일반 민중의 교육에 기여하였다. 1867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타협으로 이중왕국이 성립한 이후, 헝가리 정부는 독자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근대적인 헝가리 교육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헝가리의 교육 제도는 독일식 엘리트 교육 제도에 영향을 받았고, 1868년에는 의무적인 보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1961년 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법이 제정되어 공공 교육제도를 주로 교육부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기에 교육부장관인 외트비시 요제프(Eötvös József)의 주도로 이루어진 법체계를 통해 초등학교 네트워크의 개혁, 중등 교육기관의 확대, 교사 및 교수 훈련 시스템 개선, 새로운 고등 교육제도 및 대학 설립 등을 실현하였습니다.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통합하여 제국을 건설한 이후, 교육 부문에서도 많은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헝가리의 교육정책 목표는 문맹을 근절하고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계획이 성립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대에는 많은 수의 각 급 학교가 설립되었고, 교육의 질과 교육 환경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호르티(Horthy Miklós) 통치 시대에는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와 보완이

3) 헝가리의 위대한 추기경 파즈마니는 성직자의 수준과 교육의 일반적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잔존하고 있었던 가장 오래 된 헝가리 대학을 설립하였다. 이정희, 『동유럽사』 (대한교과서(주), 2005), p.176.

이루어져 교육부분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정착은 헝가리를 학문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만들었고, 후대에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트리아논(Trianon) 조약에 의해 헝가리는 영토 및 인구의 2/3, 교육기관의 절반을 상실한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발생이전까지 국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교육 수준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영토 상실로 없어진 교육기관을 새로 대체하기 위한 대학들이 세게드(Szeged, 1921), 페치(Pécs, 1923) 등지에 설립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헝가리 교육제도는 지나친 중앙집권적 행정, 자율성의 상실, 러시아어와 마르크시즘의 의무 교육, 교회학 교시스템의 통합, 획일화 등을 경험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교육 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 법령에 따라 공산주의 시절 모든 헝가리 교육 시설은 국립으로 무상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89~90년 체제변화로 다시금 교육제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1990년 이후 사립교육이 부활된 후 국립대학은 1995년부터 소액의 수업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갔다. 1993년 헝가리의 역사적 교육 전통과 유럽교육 발전의 흐름과 성과 등에 기초하여 공교육, 직업훈련 및 고등교육에 관한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1996년 개정된 공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 의무교육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
- 러시아어와 마르크시즘의 의무교육 폐
- 교회운영학교의 재설립
- 학교 및 교사의 자율성 증대 및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교관계자,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협의회 설치 운영
- 학급 수, 각 학년별 학생 수, 교사진의 규모 등과 같은 학교의 구조적 형태는 지역단위가 정하고 정부에서는 고용 비용 부담

헝가리는 2004년 5월 유럽연합 가입 이후 유럽연합의 대학 교육 개혁인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보조를 맞추어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강의실 및 기숙사 등 교육기관 시설을 확충하며 대학 주변에 현대적인 지식 센터를 설립하였다.

3. 통합 이후 헝가리 학제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

헝가리는 교육을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로 인식하고, 교육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4) 이상동, 『헝가리의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 (2012), p.13.

교육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지식 자산 축적을 목표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헝가리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학제 구조 및 학위제도를 변화시켰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고등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것으로,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헝가리 교육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 볼로냐 프로세스의 원칙에 따른 EU 교육체계와의 조화 및 양립: 헝가리는 볼로냐 선언에 참여한 이후, 3단계 학위 구조, 박사 학위 의무화, 유럽학점인정제도(ECTS) 도입 등의 개혁을 통해 EU 교육체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
- 교육제도의 투명성: 교육제도의 틀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EU의 학위인증 원칙규정 준수: EU의 학위인증 원칙규정에 따라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헝가리에서 취득한 학위는 EU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보다 쉽게 인정되며, 학생들은 EU 국가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하는 데 더 큰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헝가리 출신 학생들에게 국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유럽의 학점제도 인정제도에 따른 고등교육과정 규정: 유럽의 학점제도 인정제도에 따라 헝가리 고등교육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EU 가입은 학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촉진하였다. 헝가리 대학들은 다양한 학위 수준과 전공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였다.
- 학생이동(국내외, 학과 간)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학생의 유연한 학습 경로를 지원하고, 유럽 내에서의 학위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이동성과 상호인정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 학생들이 유럽연합 내의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헝가리 대학들은 유럽 내 다른 대학들과의 학생 교류 및 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rasmus+와 같은 교환 프로그램은 헝가리 학생들에게 다른 EU 국가에서 공부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헝가리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로 이어진다.

- 유럽 고등교육 협조 틀 내에서 교육 수준관리 정책 지지: 유럽 고등교육 협조 틀 내에서 교육 수준 관리 정책을 지원하여 헝가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 연구 및 경제와 상호작용에 따른 교육내용의 근대화: 헝가리의 대학들은 국제 연구 협력을 증가시키고 국제 학술 커뮤니티와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등 교육과 학술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교육, 연구 및 경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내용을 근대화하고, 고등교육의 실용성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볼로냐 선언에 합류한 후, 헝가리는 고등 교육 분야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00년에 학제제도통합을 시행하였다. 2000년 고등교육 제도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전국에 수십 개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들을 합병하여 새로운 통합대학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로 데브레첸 대학교(Universities of Debrecen), 페치 대학교(Pécs University), 세게드 대학교(Szeged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부다페스트시의 외트보시 로란 대학교(Eötvös Loránd University), 세멜바이스 의과대학(Semmelweis Medical University), 부다페스트 기술 경제대학교(이전의 부다페스트 기술 대학교), 코르비누스 대학교(Corvinus University of Budapest), 부다페스트 경제 과학 및 행정 대학교(Budapes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conomics)는 독립 대학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노력은 헝가리가 2004년에 슬로베니아와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볼로냐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을 도입하였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실행으로 인해 삼원화된 학위 구조가 도입되어 헝가리 대학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많은 전공과목들이 사라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의 헝가리 고등교육은 4년제 학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EU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3단계 학제 구조로 개편되었다. 1단계는 3년제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과정, 2단계는 2년제 석사 학위(Master's degree) 과정, 3단계는 3년제 박사 학위(Doctorate) 과정이다.

헝가리는 볼로냐 선언에 참여한 이후 급진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해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공정성 증진, 교육과 경제의 연계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헝가리의 고등교육 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에서는 3단계 학위 구조 도입, 박사 학위 의무화, ECTS 도입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 향상은 우선적으로 3단계 학위 구조 도입으로 인해 학사 학위의 교육 내용이 강화되고,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의 교육 내용이 세분화되어 학습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제고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사 학위 의무화로 인해 교원들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ECTS 도입으로 인해 교원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고, 학생의 학습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교사 양성 프

로그래밍의 개선으로 인해 우수한 교원이 양성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다. 고등교육 기관의 시설 확충 및 현대화로 인해 교육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헝가리의 교육 개혁은 교육의 공정성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교육제도의 투명성 제고, 학생이동 인센티브제 강화 등의 개혁을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성이 확대되고, 교육의 공정성이 증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교육의 공정성 증진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교육제도의 투명성 제고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생이동 인센티브제 강화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가 확대되었다.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 격차가 감소하고, 교육의 공정성이 증진되었다. 또한 헝가리의 교육 개혁은 교육과 경제의 연계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교육, 연구 및 경제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해 교육과 경제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 교육과 경제의 연계 강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과 산업 수요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인해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과 연구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학생의 취업 역량이 강화되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4. 통합이 헝가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성과

중동부유럽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 교육 개혁은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유럽 연합의 집행 기관인 집행 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에서부터의 개혁" 방향과 내용은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와 교육 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다. 이 중에서 헝가리는 특히 주목할 만한 예시이다. 이 국가는 공산주의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유럽 연합 교육 개혁 및 국제 비교 교육학계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체제 전환 국가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와 같은 초국가적인 정책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주체는 대부분 정부이다. 그 결과, 볼로냐 프로세스의 본래 취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높이는 것이었지만, 헝가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정책을 실행하는 대학 교수 및 행정가들은 정부에서 외부적으로 부여된 정책과 압박에 대응하면서 보여주기식 개혁에 반응한 결과, 교원들의 동기와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과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공개 성명과 내부 기관 구조 및 행동 간의 불일치가 흔히 나타났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제 전환 국가인 헝가리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할 때, 체제 전환 국가의 교육 개혁이 주는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일선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중앙 정부 교육 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기반으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는 헝가리와 같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 체제변환 국가에 전이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헝가리에서는 기존 대학의 교원 중 박사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교원들이 박사 학위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급조된 박사 학위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며, 일부 대학은 교원들에게 박사 학위 취득을 촉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박사 학위의 일반적인 기대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유럽 학점 인정 제도(ECTS)의 도입도 문제를 야기했다. 헝가리 정부는 자국의 학점 제도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ECTS와 호환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학사 및 석사 과정의 학점 인증을 위해 ECTS 수준별 단계를 채택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실제적인 모습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헝가리에서는 ECTS를 위한 학습량이 교수와 학생들의 실제 지도 시간이 아닌 접촉 시간으로 계산되어 학습의 양이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ECTS 학점과 학습 성과 간의 관련성이 모호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원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헝가리 대학의 입학 및 교수 임용제도 등 헝가리 교육 제도 내부의 논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문제 인식 없이 ECTS 학점 제도가 도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럽 학점 인정 제도(ECTS)가 헝가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헝가리의 학제 구조 및 학위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관점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헝가리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헝가리 고등교육의 특색 있는 다양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볼로냐 프로세스로 인해 학사 학위 과정의 교육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고등교육 기관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개선 방안을 채택하여 헝가리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학생들과 교육 기관을 지원하여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헝가리의 교육체제는 근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며,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 교육체제의 기원은 996년에 편논헐머의 성 마틴 힐 수도원에서 베네딕트 수도승들에 의해 놓였으며, 14-15세기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변화했다. 초기에는 학교가 기초교육과 실용과학 강조의 장으로 사용되었고, 대학은 페치, 오부다, 포조니에 설립되어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초의 헝가리 대학은 14세기 초에 설립되었지만, 17세기까지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고등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유럽과 유사한 학위 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의 질과 다양성이 향상되었다. 1999년의 볼로냐 선언은 헝가리의 학위 제도와 교육 내용을 개선하며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학위 상호인정을 촉진했다. 따라서 헝가리의 학제체제는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구조와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교육체제는 헝가리의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하고 있. 박사 학위의 부족한 품질, ECTS 학점 시스템의 형식화, 그리고 학사 학위 취업의 어려움이 그 예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박사 학위 취득의 기준을 강화하고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ECTS 학점을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학사 학위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학사 학위 취득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의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헝가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학위를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어, 세계 교육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영어와 독일어를 공용어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국제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헝가리 의 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헝가리의 고등교육은 품질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지영 (2008)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시대와 호르띠 시대의 헝가리 교육제도 연구, 『동유럽발칸학』 제10권, 제2호: 261-287.
- 김 선 (20172) 체제 변환기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교육 개혁이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 볼르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7권, 1호: 145-169.
- 이상동 (2012), 『헝가리의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
- 이상협 (1996), 『헝가리史』.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정희 (2005), 『동유럽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Bakos István, “Magyar Iskola,” „Haza a magasban” magyar nemzetismeret II. (Antológia Kiadó, Budapest, 2002)
- Európai Unió Tanácsa (2009): A Tanács következtetései (2009. május 12.) az oktatás és képzés terén folytatott európai együttműködés stratégiai keretrendszeréről („Oktatás és képzés 2020”). 2009/C 119/02
- Európai Bizottság (2011): A Bizottság közleménye az Európai Parlamentnek, a Tanácsnak, Az Európai Gazdasági és Szociális Bizottságnak és a Régiók Bizottságának (2011. szeptember 20.). Az európai felsőoktatási rendszerek által az intelligens, fenntartható és inkluzív növekedés terén tett hozzájárulás növelése, COM/2011/0567
- Európai Bizottság (2013): A Bizottság közleménye az Európai Parlamentnek, a Tanácsnak, a Gazdasági és Szociális Bizottságnak és a Régiók Bizottságának. Az európai felsőoktatás a világban. COM/2013/0499
- Fokozatváltás a felsőoktatásban. A teljesítményelvű felsőoktatás fejlesztésének irányvonalai. Felsőoktatási stratégia, 2015.
- Kardos József szerk., *A magyar felsőoktatás évszázadai* (Nemzeti Tankönyvkiadó Rt., Budapest, 2000)
- Mészáros István-Németh András-Pukánszky Béla, *Neveléstörténet –Bevezetés a pedagógia és az iskoláztatás történetébe* (Osiris Kiadó, Budapest, 2003)
- Németh András, *A magyar pedagógia tudománytörténete* (Gondolat, Budapest, 2005)
- Tibor, Valuch, “A CULTURAL AND SOCIAL HISTORY OF HUNGARY 1948-1990,” László, Kósa ed., *A CULTURAL HISTORY OF HUNGARY –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Corvina, Budapest, 2000)